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노지(露地)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연구

-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産教育學科

房 慈 娟

2021年 8月

‘노지(露地)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연구

-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張 承 姬


房 慈 娟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年 8月

방자연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장 광중 

위 원

김 은석 

위 원

장 승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年 8月

Study of Local Cultural Education Programs
Based on 'Noji(Open Ground) Culture'
- Centering on the Original Downtown Area of Seogwipo -

Ja-Yeon Bang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Hee J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ang Seung Hee,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노지문화와 지역문화 이해	5
1. 노지(露地)와 노지문화(露地文化)의 개념	5
2. 노지문화와 지역문화의 상관관계	9
3.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교육의 필요성	12
III.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방향성 탐색	15
1.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15
2.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시사점 및 방향성 탐색	29
IV.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36
1.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구상: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36
2. 교육 목표: 노지문화의 가치 제고·문화공동체 형성·주민 삶의 질 고양	40
3. 교육 내용: 빛·물·돌·바람·길·사람의 노지문화를 중심으로	42
4. 프로그램 적용 및 활용 방안	69
V. 결론 및 제언	79
참 고 문 헌	83
Abstract	88

표 목 차

<표Ⅱ-1> 노지문화자원의 분류	8
<표Ⅱ-2> 시민테이블을 통해 제시된 노지문화의 의미	11
<표Ⅲ-1> ‘길 위의 인문학’ 공공도서관 특별 프로그램(2019)	16
<표Ⅲ-2> 종로구 ‘살아있는 인문학 박물관’ 프로그램(2011)	17
<표Ⅲ-3> 제주문화예술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2020)	19
<표Ⅲ-4>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창의문화캠퍼스 시범사업 프로그램(2020)	21
<표Ⅲ-5> 강릉문화재단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23
<표Ⅲ-6> 인천서구문화재단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25
<표Ⅲ-7> 포항문화재단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26
<표Ⅲ-8>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방향성 탐색 결과	28
<표Ⅲ-9> 지역문화전문가 인터뷰 질문 및 대상	29
<표Ⅲ-10> 지역문화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방향성 탐색 결과	35
<표Ⅳ-1> 서귀포시 원도심 일대의 SWOT 분석	37
<표Ⅳ-2>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 노지문화자원 현황	39
<표Ⅳ-3>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구상(안)	40
<표Ⅳ-4> ‘노지로(路) 연대학’ 프로그램 개요	69
<표Ⅳ-5> ‘노지로(路) 연대학’ 프로그램 적용(안)	74

그림 및 사진 목차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II-1> 노지문화자원의 특성	9
<그림 II-2> 노지문화와 지역문화의 상관관계	12
<그림 IV-1> 탐라순력도 감귤봉진(柑橘封進)	45
<사진 IV-2> 서귀포 삼매봉 남성대 전망대와 카노푸스 안내판	48
<사진 IV-3> 서귀포층 전경과 서귀포층 패류화석 안내판	51
<사진 IV-4> 천지연 폭포 전경과 안내판	52
<사진 IV-5> 외돌개 전경과 안내판	55
<사진 IV-6> 서귀진지 전경과 안내판	56
<사진 IV-7> 서북 10경중 서불과지(徐市過之)와 서귀기원(西歸起源)	60
<사진 IV-8> 기당미술관 전경과 상설전시실	61
<사진 IV-9> 중정로 일대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63
<사진 IV-10> 이중섭거리와 이중섭미술관 전경	65
<사진 IV-11> 소암 현충화와 서예작품	67
<그림 IV-12> ‘노지로(路) 연대학’ 프로그램 대상	71
<그림 IV-13> ‘노지로(路) 연대학’ 프로그램 운영	71

【국문초록】

‘노지(露地)’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연구

-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

방 자 연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장 승 희

지역문화는 다양한 자원들로 구성되는데, 그 중 노지(露地)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지역문화의 한 부류로서 자연 상태에 가까운 노지에서 문화를 가꾸면서 삶의 지혜를 성장시켜 왔다. 제주 지역에서는 ‘노지감귤’과 ‘노지소주’라는 표현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가리켜 ‘노지’라는 표현을 쓴다. 노지란 ‘이슬 로(露)’와 ‘땅 지(地)’가 합해진 말로 사전적 의미는 “이슬이 내리는 땅”이라는 뜻이다. 해석하면 곧 지붕이 없는 개방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지문화’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노지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서귀포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노지문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지문화는 서귀포시 행정에서 제안된 문화정책으로 서귀포의 문화비전이기도 하다.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노지감귤, 노지소주 등 ‘노지’라는 단어가 주목되면서 ‘문화’와 결합하며 ‘노지문화’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열린 땅’이라는 노지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정신문화까지 포함시켜서 노지문화를 이해하였다. 따라서 ‘노지문화(露地文化)’란

자연친화적인 유·무형의 노지문화자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적인 문화, 사람과 자연 안에 내재한 공동체의 문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지를 이용하는 지역 공동체의 삶과 정신이 담긴 문화를 노지문화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귀포시의 지역성이 강조된 노지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지역·문화적 특성 연구와 함께 타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탐색하여 노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노지에 존재하는 빛·물·돌·바람·길·사람, 여섯 요소의 문화원형을 중심으로 서귀포 원도심 지역에 있는 노지문화자원을 구별하고, 그것을 소재로 활용하여 교육적 가치를 파악해서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서귀포시 원도심에 있는 다양한 노지문화자원의 가치를 발견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연대하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생활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문화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지역의 문화발전을 가져오고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담론에서 노지문화는 지역문화의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와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지역민들에게 곧은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주제어: 노지, 노지문화,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서귀포시 원도심, 문화도시, 문화공동체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한 지역에서 태어나 그 지역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교육받고 성장한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¹⁾는 말이 있듯이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지역문화는 인간 성장의 자원이자 동력이다. 지역문화는 다양한 자원들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노지(露地)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노지감귤, 노지소주’라고 하여 ‘노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포함하는 말이다. 노지란 ‘이슬 로(露)’와 ‘땅 지(地)’가 합해진 말로 사전적 의미는 “이슬이 내리는 땅”이라는 뜻이다. 해석하면 곧 지붕이 없는 개방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지문화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노지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서귀포 원도심²⁾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서귀포시가 법정 문화도시³⁾로 지정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노지문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 공동체의 삶의 역사와 더불어 개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가진 서귀포시의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2018년 12월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2019년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준비하던 사업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⁴⁾ 노지문화는 서귀포시 행정에서 발의된 문화정책으로 서귀포의 문화비전이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노지의 의미를 ‘개방된 땅’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와 지역 공동체의

1) 유현준(2018), 『어디서 살 것인가』, 을유문화사, p.33.

2) 서귀포시 원도심은 법정동상 서귀동 일대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송산, 정방, 중앙, 천지동으로 나뉘어져 관할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6항)

4) 박가영, 『뉴스제주』 (2020.06.14.), “법정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도시의 새로운 길을 걷다””,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45486>, 검색일: 2021.02.10.

정신문화도 포함시켜서 이해하였다. ‘노지문화(露地文化)’란 이슬이 내린 열려있는 땅 위의 노지에서 가꾸어 온 문화, 자연친화적인 유·무형의 노지자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적인 문화, 사람과 자연 안에 내재한 공동체의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노지를 이용하는 지역 공동체의 삶과 정신이 담긴 문화를 노지문화라고 보았다.

노지문화에 대한 학술적인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여서 상위의 개념인 지역문화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연구 범위를 노지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서귀포 문화정책에서 제시한 노지와 노지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서귀포는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분야의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노지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성이 강조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노지문화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 사람들이 융화될 수 있도록 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서귀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고에서는 ‘노지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 대상을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으로 하여 노지문화자원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노지와 노지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노지문화와 지역문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지문화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타 지역의 문화 교육프로그램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방향성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프로그램의 방향성 탐색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노지문화를 활용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자 한다. 구상한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활용 방안으로 구성한다. 첫째, 교육 목표는 노지문화자원의 가치 제고, 문화공동체 형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세 가지를 제시한다. 둘째, 교육 내용은 노지문화의 여섯 요소인 빛·물·돌·바람·길·사람을 주제로 분류하고,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교육적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지로(路) 연대학’이라는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 조사를 위해 논문자료 및 학술보고서, 신문자료 고찰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문화도시센터, 문화재청과 국립국어원 등의 홈페이지 자료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역문화기획자 교육과정에서 지역문화 기획과 교육 활동을 통해 파악한 ‘지역문화’ 관련 자료를 활용하며,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의 창의문화캠퍼스 교육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 자료를 본 논문의 선행연구 자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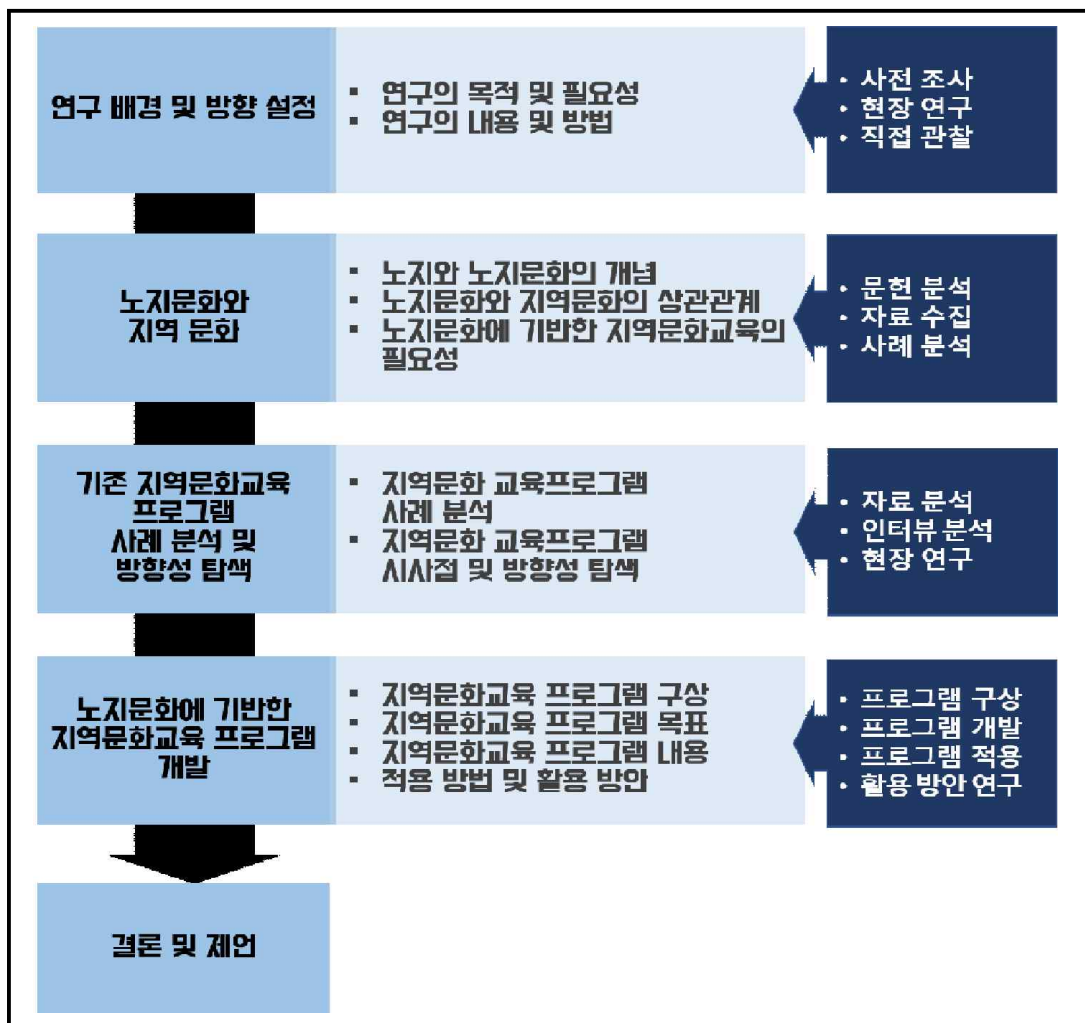
셋째, 지역문화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귀포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 서부도서관에서 진행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과 2020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서귀포 문화도시센터에서 진행한 창의문화캠퍼스 시범사업 ‘노지문화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때 모니터링 한 프로그램의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연구에 포함한다.

넷째, 심층면담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문화전문가 및 노지문화전문가와 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사점을 분석한 자료를 논의의 근거로 제시한다.

다섯째, 현장연구를 위해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의 노지문화자원을 파악하고 수집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사진자료를 활용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가 전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논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노지문화’와 관련된 연구 영역을 설정하여 제IV장에서는 노지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진행은 <그림 I -1>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림 I -1> 연구의 흐름도



※ 출처: 연구자 구성

Ⅱ. 노지문화와 지역문화 이해

1. 노지(露地)와 노지문화(露地文化)의 개념

1) 노지(露地)의 개념

‘노지(露地)’란 사전적으로 “지붕 따위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⁵⁾이다.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 ‘이슬 로(露)’에 ‘땅 지(地)’가 합해진 단어로 “이슬이 내리는 땅”이라는 의미다. 이는 곧 이슬이 내리는 사방이 열려있는 땅으로 개방적 장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주지역 감귤 농가에서 ‘노지감귤’이라고 쓰이는데 노지감귤 재배는 실내의 하우스 농사와 달리 인위적으로 일조량이나 강수량, 온도 등을 조절하지 않는 비교적 쉬운 재배방법으로 야외의 밭에서 자연 그대로 키운 감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노지란 무언가 가미되지 않은 자연스러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외의 감귤재배를 하는 농사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또한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음주문화 중에서 ‘노지소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채 상온에 그대로 있던 소주를 가리킨다. 이렇게 제주지역에서 노지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배어있는 독특한 삶의 문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지는 『불교』에서 삼계(三界) 중 ‘화택(火宅)을 떠난 안온한 곳’이라는 의미로서 “속계를 떠난 고요한 경지를 이른다.”고 정의된다.⁷⁾ ‘노지백우(露地白牛)’라는 용어가 있는데, 『법화경(法華經)』에 나오는 말로서 「비유품(譬喻品)」에 장자의 아들들이 불붙는 집에서 뛰쳐나와 노지에 앉아서 대백우거(大白牛車)를 보았다는 일화에서 비유적으로 쓰였다. 이때 아무것도 덮인 것이 없는 드러난 땅의 ‘백우’와 계외(界外)의 편안한 곳을 비유한 ‘노지’가 합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⁸⁾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12.01.

6) 권정우(2020), 「건축과 장소, 그리고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들」,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76, p.36.

7) 국립국어원, 앞의 자료.

8) 임기중(2004), 『조선종교문학집성(불교편)』, 「불교가사연구」, 누리미디어, <https://www.krpia.co.kr>. 검색일: 2020.12.05.

즉, 불교에서 노지의 개념은 번뇌 망상이 조금도 없는 청정무구(淸淨無垢)한 곳, 속계를 떠난 고요의 경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노지는 일본 후시안(不審庵)의 다도문화에서도 쓰인다. 이때 노지는 일본 정원 양식의 하나로 다도문화 속에서 창조된 개념이다. 노지의 핵심은 정원에 놓인 디딤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서 생겨나는 찰나의 자기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정원에 노지를 구성할 때는 필히 마음의 자정작용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노지의 식물요소는 인생의 생(生)과 사(死)를 상징하며, ‘와비(わび)’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¹⁰⁾

이상에서 노지의 개념을 사전상의 정의, 제주 지역문화의 활용, 불교적 의미, 그리고 일본의 다도문화에서 창조된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면 ‘노지’의 개념을 개방된 땅을 의미하는 장소적 가치 이상의 청정무구한 마음의 경지를 아우르는 곳, 찰나의 자정작용을 하는 다도 정원의 공간, 제주지역의 독특하고 다양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문화라는 개념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지의 의미를 자연 속의 개방된 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되, 위에서 정의한 노지의 다양한 의미도 추가하여 정신문화도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노지문화(露地文化)의 의미

노지문화(露地文化)의 의미를 정의하기에 앞서 노지문화를 ‘노지’와 ‘문화’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로 보고 ‘노지’의 의미에 이어 문화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

문화(文化)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 ‘cultus’에서 유래했다.¹¹⁾ 이는 라틴어 ‘culutura’를 어원으로 ‘땅을 경작하다, 돌보다, 지배하다, 가꾸다’ 등의 의

9) 와비(わび)적이라는 것은 고독과 빈곤이 담겨진 차분한 정취를 뜻하는 말로, 원래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부정적인 가치를 품고 있었으나 중세말의 다도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미적 이념이 되었다. 화경청적(和敬淸寂)으로 대표되는 다도정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1.01.10.

10) 최미영·이소민(2020), 「후시안(不審庵)의 노지(露地)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 6(2), pp.134-140.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01.09.

미를 지니고 있다. 즉 자연 전체를 가꾸고 개간하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한 행위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¹²⁾ 어원에서 볼 때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이 빚어내거나 창작하는 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문화라는 용어는 주로 예술과 함께 쓰이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경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창조적인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용어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문화에 대해 정의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김형국(2001)은 문화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람직한 가치의 구현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정의하였다.¹³⁾ 김주호(2007)는 문화를 인간의 자기창조 과정으로 이해하며, 우리가 인식하는 자연 또한 인간과 관련된 자연이므로 이미 그 자체가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았으며,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이해와 의미의 지평 안에서 형성되고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¹⁴⁾ 2013년에 제정한 「문화기본법」 제3조에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 현대에 들어와서 문화는 점차 개인을 중심으로 순수, 자기창조, 자연과 인간의 조화, 끊임없이 변화하고 축적되는 활동, 예술적 감성과 같은 내재된 지적이고 미적인 사고나 삶의 방식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즉, 문화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삶 속에 축적된 아름다움에 대한 창조적 행위의 총체로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이해를 위한 것이며, 유·무형의 문화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개개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이 포함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노지문화(露地文化)란 이슬이 내린 열려있는 땅 위의 노지에서 가꾸어 온 문화, 자연친화적인 유·무형의 노지자원과 더불어 순응하며 살아가는 청정무구한 정신적인 문화,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서 사람과 자연 안에 내재한 공동체의 문화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2) 한슬기(2014), 「지역특성기반 학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태안지역 농산어촌 중학교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13) 김형국(2001), 「도시와 문화를 생각한다」, 『국토』, p.2.

14) 김주호(2007), 『문화예술교육론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p.9.

1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문화기본법” 검색, 검색일: 2021.02.03.

개방된 노지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씨앗을 심거나 돌을 쌓거나 집을 짓는다. 혹은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하고 표현한다. 자연속의 노지를 이용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사람의 지혜가 모여 공동체의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고, 여기서 파생된 문화가 곧 노지문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지문화의 개념을 오랜 세월 자연속의 개방된 노지에서 지혜를 모아 경작하며 조화롭게 살아온 지역 공동체의 삶의 문화로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지문화를 구성하는 개체는 지역의 노지문화자원들이다. 노지문화자원은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존과 발굴 및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과거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역자원이 포함된다.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포함하며, 노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빛, 물, 바람, 돌, 길, 사람 등 문화 원형적인 요소부터 유·무형의 노지문화자원을 포함한다. 노지문화자원을 분류해 보면 <표Ⅱ-1>의 표와 같다.

<표Ⅱ-1> 노지문화자원의 분류¹⁶⁾

유형 노지문화자원	무형 노지문화자원
산업자원 (농수산물·목장·어촌 등)	인물자원 (인물·사건 등)
시설자원 (미술관·공연장·광장·공원 등)	민속무형자원 (풍속·관습·종교 등)
자연자원 (빛·물·돌·천연자원·동식물 등)	스토리자원 (설화·전설·민담 등)
역사자원 (문화재·민속자료·길 등)	행사자원 (축제·제례·마을행사 등)
건축자원 (가옥·기념관·사찰 등)	예술자원 (문화재·노래·소리·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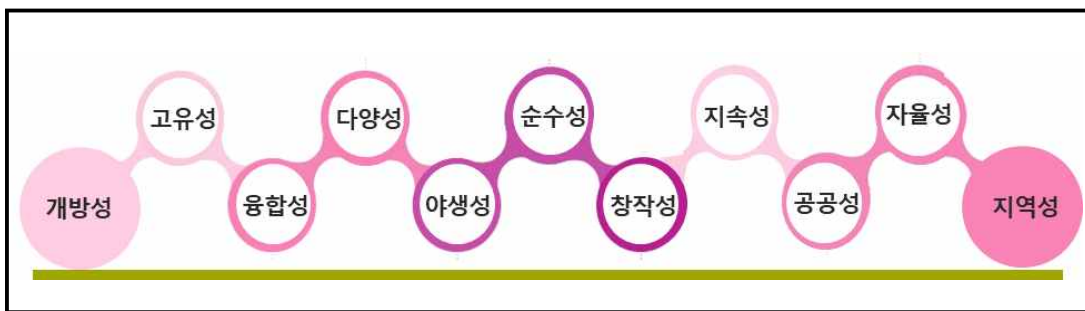
※ 출처: 김창수 외(2013) 토대로 연구자 제작성

노지문화자원은 지역의 문화 중에서도 개방된 외부 환경을 반영한 자원으로 예부터 존재해오던 자원인 경우가 많다. 노지문화자원이 지역문화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노지문화는 중요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는 지역문화 중에서도 문화원형

16) 김창수 외(2013), 『지역축제』, 대왕사, p.45.

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고유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도 일조할 수 있다. 따라서 노지문화자원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지속가능하도록 전승되어야 할 자산이다. 이러한 노지문화자원은 <그림Ⅱ-1>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마치 비정형화된 수목구조와 같이 수평적 구조에서 탈중심화 되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리즘¹⁷⁾형 구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Ⅱ-1> 노지문화자원의 특성



※ 출처: 연구자 구성

노지문화자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노지문화자원은 사방이 열려있는 척박한 노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방성을 띠고 있다. 둘째, 노지문화자원은 독특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서로 융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셋째, 노지문화자원은 유·무형의 무수한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성을 지녔다. 넷째, 자연의 일부로서 야생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다섯째, 자연상태 그대로 원형적으로 존재하여 순수성을 가진다. 여섯째, 노지에서 경작되거나 창조된 자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 일곱째, 노지문화자원들은 과거부터 미래로 이어지므로 지속성을 띠고 있다. 여덟째,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으로써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다. 아홉째, 탈(脫)경계와 무(無)형식의 자유분방함을 지니고 있다. 열째, 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주

17) ‘리즘(rhizome)’은 식물학에서 등장하는 용어로 들뢰즈가 그의 저서 『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에서 전형적인 수목구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수목형 사유체계에서의 수직적 구조와 획일적 방향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위계관계에서 탈피한 수평적 구조와 개방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리즘형 구조는 기존의 질서로부터 탈중심화하며 다양성을 촉발한다. 최소희·유영만·강수민·임애련(2020), 「들뢰즈 리즘 개념에 비추어 본 독서교육의 시사점」,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pp.136-137.

는 물론 기후나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역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2. 노지문화와 지역문화의 상관관계

현대 사회에서 문화의 힘은 다양성에 있다. 그 출발은 지역¹⁸⁾과 지역문화였다. ‘지역(region)’과 ‘지방(country)’은 비슷하게 쓰이지만 실상 지방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역이라는 의미 외에 ‘시골’, ‘변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앙’과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¹⁹⁾ 반면에 지역은 서울, 도시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지방보다 더 일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개념의 변화는 물리적 의미에서 복합적인 개념의 공간으로 발전되었다. 근대 이후 지역은 사회제도, 상징, 이데올로기, 자연 자원, 인위적 자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현실 세계에서 구체화 된 현상이 곧 지역이며 자연적·인위적 맥락 속에서 고유한 특성을 수반하는 것이 지역이었다. 오늘날 지역이란 물리적인 속성과 자연을 토대로 사람들의 사회적·문화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한 지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역사적 사건, 유명 인물, 특징적인 장소 자산, 특산물, 자연환경은 우선적인 선별 대상이 되었다.²⁰⁾

지역문화진흥법(2014)에서는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 2조 1항).²¹⁾ 이나라(2020)는 “지역문화란 공통의 요소로 연결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의 집합체이며, 지역문화자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닌 문화적 요소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내는 유·무형의 결과물이자, 유·무형의 모든 문화적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²²⁾ 최근의 몇 년 간 지역과 지역문화를

18) 지역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으로, 산맥이나 구릉·하천유역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의하여 구분되는 자연적 지역과 정치적·행정적 영역이나 역사적 영역, 동일한 방언이나 민속, 경제지역 등으로 된 인문적 지역으로 대별된다.

19) 비판사회학회(2012),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한울, p.540.

20) 원다솔(2020), 「동네 기록 기반의 지역문화콘텐츠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9-11.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문화진흥법(제 2조 1항)” 검색, 검색일: 2021.02.05.

22) 이나라(2020),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광주광역시 동구문

정의하는 연구자들의 논의가 이러한 맥락이다 보니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부상하였다.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만큼 우리나라 역시 2014년부터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이 본격화 되었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비전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서귀포다운 문화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시민테이블을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통된 키워드가 사람과 자연이었다. 사람과 자연을 포용하는 문화이면서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문화로서 노지감귤, 노지소주 등으로 익숙한 ‘노지’라는 단어가 ‘문화’와 합해져 ‘노지문화’가 나오게 된 것이었다.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를 지역문화의 브랜드로 제시하여 2019년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다.²³⁾ 서귀포시에서 시민 110명을 대상으로 노지문화를 주제로 토론했던 시민테이블을 운영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Ⅱ-2>의 표와 같다.²⁴⁾

<표Ⅱ-2> 시민테이블을 통해 제시된 노지문화의 의미

Q. 노지문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순리를 지키는 것 ▪ 오랜 시간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 ▪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 ▪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조화로운 삶 ▪ 보호하고 전승해야 할 제주의 전통 ▪ 특별하고 고유한 서귀포만의 로컬문화 ▪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자연과 함께 생성된 문화 ▪ 사람, 마을, 수놓음 ▪ 105개 마을의 고유한 유·무형 문화자원 ▪ 아름다운 자연 속 소박한 공동체 문화를 소중하게 가꿔왔던 서귀포의 문화
----------------------------------	--

※ 출처: 서귀포문화도시센터(2020) 자료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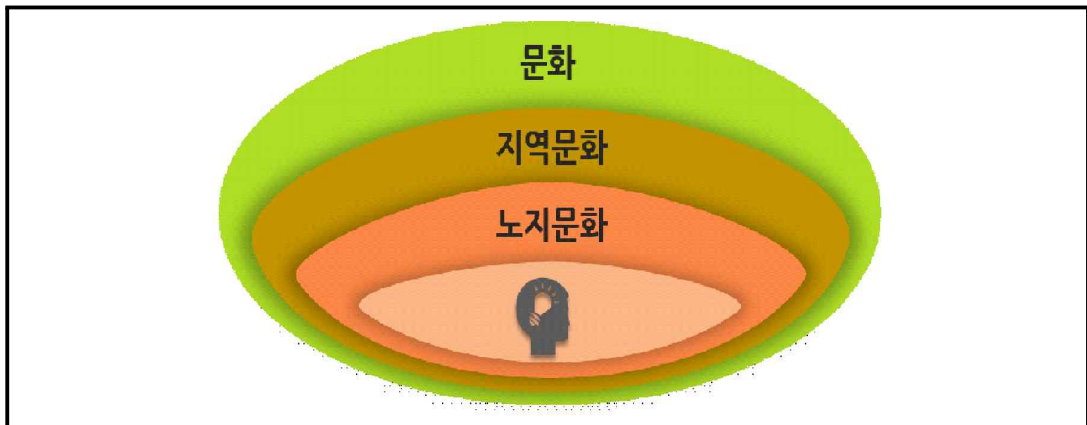
회원 사례를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7.

23) 서귀포문화도시센터, 도시문화기획자 인터뷰(2021.05.12.) 내용 연구자 정리.

24) 서귀포문화도시센터(2020), 『노지문화 시민라운드테이블 결과모음 - 서귀포의 노지문화를 말한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p.5.

위의 <표Ⅱ-2>에서 제시한 노지문화의 의미는 자연의 순리, 삶에 스며있는 문화, 미래자산, 자연과 조화로운 삶, 제주의 전통, 서귀포만의 지역문화, 사람, 마을, 105개 마을의 고유한 유무형의 자원 모두를 가리킨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정의로는 아름다운 자연 속 소박한 공동체 문화를 소중하게 가꿔왔던 서귀포시의 문화이다. 서귀포 시민과 자연의 어우러짐을 의미한 말이 서귀포의 노지문화이며, 자연이 가지는 이중적 특성은 지역 주민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귀포만의 ‘노지문화’를 잉태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현대는 지역과 지역문화가 주목받는 시대인 만큼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진 문화가 중요해진 것이다. 민관의 협력으로 지역문화를 새롭게 변화·발전시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노지문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노지문화와 지역문화의 상관관계는 <그림Ⅱ-2>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Ⅱ-2> 노지문화와 지역문화의 상관관계



※ 출처: 연구자 구성

<그림Ⅱ-2>에서 보듯 문화라는 영역 안에 지역별 특성을 가진 지역문화가 존재하고, 그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노지문화가 있다. 노지문화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사람과 생활양식, 문화원형 요소이다. 즉, 노지문화는 지역문화의 모태이자 모성을 지닌 본연의 문화이다. 두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화의 토대를 쌓아왔다고 볼 수 있다.

3.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의 필요성

지역문화를 생성하는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구성원들의 성격, 신념, 사회 집단을 이루는 구성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의 규범이나 가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역의 문화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이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문화 교육이다. 주민들은 지역문화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역 사회의 기본적 가치나 환경을 숙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 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는 주체로 나아갈 때 지역의 문화가 성장·발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에서 노지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는 신시가지에 비해 노후화 되었지만 서귀포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오래된 중심지였기 때문에 서귀포시 중에서도 과거 공동체 문화와 가치관 등이 가장 잘 남아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귀포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지역적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노지문화는 주민이 지역을 이해하는 척도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천이고, 지역의 본원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문화의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고유한 표현기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 소득창출 차원에서 살펴보면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노지문화는 지역주민에게 자긍심 및 애郷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노지문화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역적 특색을 강조한 노지문화자원의 개발 및 콘텐츠 분야로의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경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노지문화는 공동체의 삶과 직결

되는 문화이다.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구체적인 현안과 갈등에 대해 주민 간 토론이 가능해진다.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이 길러져 지역문화를 생성하는 문화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적 문화정책 차원에서 살펴보면 지역문화의 가치는 글로벌한 세계에서 경쟁력을 띤다. 지역자원은 한류와 같은 국가 브랜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 간, 지방과 중앙간의 소통과 교류의 매개로 기능하기 때문에 로컬 리티가 강조된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적 고양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지역문화 발전이 필수적이다. 지역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강하면서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즉, 지역의 문화적 개성이 강한 노지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문화 발전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문화의 고양은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방향성 탐색

1.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1)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1) 길 위의 인문학

①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특성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활용하여 강연·탐방(체험)·후속 모임으로 구성된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인문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도서관을 통한 인문프로그램을 보급해 개인의 인문학적 사유를 일깨우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문제에 공감하는 인문의식의 출발점으로서 인문독서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인문독서 문화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우수도서 독서와 저자강연, 현장탐방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책과 사람, 현장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 창출을 도모한다.²⁵⁾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고안되어 나온 새로운 실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배움이 일어나는 모든 길에서 인문학을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길을 의미하기도 한다. ‘길’을 통해서 노숙인, 가난한 부랑자,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등하게 열리는 인문학 강의를 말한다. 열려 있는 인문학의 길은 노지문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표Ⅲ-1>과 같다.

25) 이희복(2020), 「도서관 공모사업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16.

<표Ⅲ-1> ‘길 위의 인문학’ 공공도서관 특별 프로그램(2019)

프로그램명	내용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적 성찰과 힐링의 기회 제공 각 분야 전문가 초빙
찾아가는 청년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거주 청년들의 지속적인 공동체 운영 지원 인문 소모임, 인문콘서트 진행
다원인문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청년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인문학 강연 제공 각 분야 전문가 초빙
도서관 지혜학교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세대 및 중장년층 대상 참여형, 심화 프로그램 지역 국·공립도서관과 국·공립대학교의 인문대학이 협력하여 운영
인문공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공감 인문 행사 인문학 사업소개, 전시, 체험, 포럼

※ 출처: 이희복(2020) 논문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② 시사점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직접 지역의 특정한 길 위를 걸으며 이루어지기도 한다. 직장인이나 청년층 등 특정 계층을 찾아가기도 하고,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기도 한다. 배움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직장인, 은퇴세대, 청년, 청소년,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수강생에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이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서 지역문화자원인 ‘길’과 ‘인문학’의 융합으로 노지의 열려있는 길의 인문학 여정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지역을 돌아보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잡이와 같은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2) 지역 박물관 연계 인문학아카데미

①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특성

지역 박물관 연계의 인문학아카데미 사업은 서울의 중심인 종로 지역에서 문화유산 중심으로 개발된 사례이다.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박물관은 살아있다>

라는 영화에서 발상을 가져왔다. ‘살아있는 인문학 박물관’이란 프로그램은 박물관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쌓아둔 창고가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되는 현재진행형 공간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다.²⁶⁾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중 중요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아카이빙 하여 시민에게 개방한 열린 공간으로서 이 모두가 공공의 노지건축문화자원이라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표Ⅲ-1>과 같다.

<표Ⅲ-2> 종로구 ‘살아있는 인문학 박물관’ 프로그램(2011)

프로그램명		종로구 명품 인문학아카데미 ‘살아있는 인문학 박물관’ - 한국 근현대사와 종로	
주차	강의방식	강의 주제	세부 내용
1주	초청특강	인문학 명사특강 1	희망, 인문학에게 묻다 (신동기 대표)
2주	체험학습	생활 속의 인문학 1	주영애 교수의 찻잔 속의 인문학
3주	이론강의	생활 속의 인문학 2	김경희 교수의 옷장 속의 인문학
4주	이론강의	생활 속의 인문학 3	박민영의 업그레이트 스피치와 매너
5주	이론강의	문학중심 종로 1	종로에서 소설을 읽다
6주	현장답사	문학중심 종로 2	소설가 구보씨 따라 종로 걷기 (작가 김태원의 차남 박재영)
7주	초청특강	인문학 명사특강 2	우리 말 글로 글쓰기의 어제와 오늘 (정현기 교수)
8주	초청특강	문학중심 종로 3	종로에서 시를 쓰다 (나희덕 시인)
9주	초청특강	역사중심 종로 1	근대 서울의 형성과 종로 건축유산 (안창모 교수)
10주	이론강의	역사중심 종로 2	인문학 스캔들, 성균관 유생들의 일화
11주	이론강의	역사중심 종로 3	민권이 싹튼 거리, 종로의 정치사
12주	초청특강	인문학 명사특강 3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서경덕)

※ 출처: 이희복 (2020) 논문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26) 김명석(2014), 「지역 연계 인문학아카데미 개발 사례 연구지역 연계 인문학아카데미 개발 사례 연구-서울 종로, 성북, 도봉 지역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6(2), p.120-121.

② 시사점

이 프로그램은 지역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고, 문학, 철학, 역사학 등 인문학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가 융합된 성격을 지닌다. 실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라 종로라는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인문학이라는 옷을 입혀 지역 자체를 살아있는 개방된 박물관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했다. 이때 박물관은 마치 노지의 개방된 땅을 의미하는 가치 이상의 과거부터 현재를 이어주는 자연과 사람의 문화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된 노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인식하여 지역의 인문학 강의를 통해 내면을 탐구하는 것처럼 지역의 노지 인문학을 탐구하는 노지 박물관 프로그램도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①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특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들이 함께 주관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²⁷⁾ 본 사업은 지역별·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문화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⁸⁾ ‘꿈다락’은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꿈꾸고 배우는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개방된 노지의 현장인 셈이다.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표Ⅲ-3>을 통해 살펴보겠다.

27) 이효나(2019), 「지역 기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례분석 연구-경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

28) 정지은(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연구 - 부산지역 음악프로그램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표Ⅲ-3> 제주문화예술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2020)

프로그램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차	강의 진행방식	강의 주제	세부 내용
1주	동영상 신체놀이 빅 드로잉	영웅의 탄생 제주의 영감들	영감(일곱 도깨비)의 능력과 특징을 신체놀이를 통해 알아보고 참가자가 영감이 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소개
2주	마을 탐험하기 움직이는 조형물	첫 번째 영감	삼각산의 지리적 위치를 알아보고 마을로 나가 멀리 보는 능력을 만들어 줄 나만의 보물찾기
3주	손가락 놀이 수건 돌리기 손가락 미술놀이	두 번째 영감	백두산의 지리적 위치를 알아보고 #백두산 #도깨비 #매밀묵 등의 키워드로 신체 활동과 이야기를 창작하여 그림으로 표현
4주	고무줄놀이 먹물염색	세 번째 영감	동요 금강산을 부르며 전통놀이 고무줄하기 금강산을 즐겨 그리던 김재 정선의 그림 감상하고 현대적으로 표현하기
5주	마주보고 손 림보 미술놀이(만다라)	네 번째 영감	계룡산은 예로부터 영험하고 제주도처럼 신이 많다는 이야기 들려주기
6주	긴 다리 닭싸움 세라밴드 스트레칭 관절인형 만들기	다섯 번째 영감	아무리 깊은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능력을 갖춘 영감이 되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선행 상상하기
7주	저스트(상상)댄스 생각확장 미술	여섯 번째 영감	지리산 영감은 죽지 않는 능력이 있는 데... 이야기 상상해서 만들기
8주	도깨비와 해녀 뮤지컬 따라잡기	일곱 번째 영감	한라산을 다스리는 제주도 영감은 불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며 해녀를 좋아한다는 짧은 이야기 극 창작하기
9주	해녀 춤 선생님께 연수받기	특강	해녀와 도깨비의 만남 (해녀 춤)
10주	영등굿 감상 영등굿 놀이	칠머리당의 영등굿	해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바람의 여신 영등할망
11주	가면놀이 가면 만들기	영감 모습은?	영감 가면을 쓰고 진짜 영감이 되어보기
12주	패션쇼 의상디자인	영감들의 런어웨이	본풀이에 나온 영감들의 모습을 살핀 후 영감들의 패션을 창조하고 패션쇼 열기
13주	굿상 차리기 차례 지내기	영감들의 잔칫날	영감놀이굿의 상차림을 알아보고 직접 상을 차려본 후 이야기를 나누며 파티하기
14주	4D와 짚배 만들기 배방선 퍼포먼스	나쁜 것 모두 띄워 보내기	영감놀이의 배방선을 알아보고 짚배만들 기와 배방선 퍼포먼스를 하며 나쁜 것 을 떠나보내기
15주	마을 탐색 간담회, 수료식	영감 놀이는 치유굿 희망의 길 걷기	오라동에 구전신화로 내려오는 설문대할망의 족두리를 찾아가 보고 족두리를 만지면 어린이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대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영감놀이 마무리하기

※ 출처: 신윤정(2020) 논문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② 시사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학교를 벗어나 아동·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예술 향유의 폭을 넓혀주고자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주 지역의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영감놀이’라는 무형의 문화자원을 심도 있게 해석했을 때 다양한 상징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²⁹⁾ 이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서 유·무형의 노지문화 자원을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음악, 미술, 무용, 영상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한다면 세대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서귀포 창의문화캠퍼스의 노지문화시범사업

①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특성

현재 서귀포시에는 대학이 없고 직업전문 훈련기관도 부재한 상황이다. 2019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통해 추진된 ‘문화농부학교’와 2020년 법정 문화도시 선정 이후 추진된 창의문화캠퍼스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문화도시 서귀포의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하여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의 시범 과정을 설계하고 문화 관련 전문교육 및 직업교육의 기능을 하는 대안 대학으로서 ‘창의문화캠퍼스’ 확장 가능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 것이다.³⁰⁾

이 캠퍼스는 서귀포시의 노지문화를 기반으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인력양성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활동이 중심이 되어 서귀포 지역 어디나 캠퍼스가 될 수 있는 열린 캠퍼스인 창의문화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다.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인력양성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및 아카이빙, 미디어 콘텐츠 제작

29) 이효나(2019), 앞의 논문, 같은 쪽.

30) 서귀포문화도시센터(2020), 『문화도시서귀포 창의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문화캠퍼스 교육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 pp.76-82.

등 역량별 5개 대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즉, 노지를 문화적으로 재생하여 서귀포시 노지문화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문화캠퍼스와 마을 문화 공간 네트워킹으로 문화인력 양성 및 문화 창업을 위한 휴먼웨어 양성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20년 서귀포 문화도시에서 다룬 노지문화 시범사업의 일환인 창의문화캠퍼스의 시범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Ⅲ-4>와 같다.

<표Ⅲ-4>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창의문화캠퍼스 시범사업 프로그램(2020)

과정명	교육 내용	
노지문화 대학	노지문화 마을지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구성과 공간의 이해, 마을책방, 마을탐방, 마을학교의 이해와 기획, 마을학교 운영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작성
서귀포문화 대학	사유의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더 나은 삶의 가치를 발견 아울러 서귀포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의 교양인을 양성하고자 기획됨
	문화예술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지역의 수많은 자원(인적, 물적, 생태환경, 사회, 문화 등)을 바탕으로 서귀포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예술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기획자 양성을 위한 시범 과정
문화미디어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미디어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의 강의 및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통해 동영상 제작 실습 심화과정을 운영 	
기후위기 문화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는 기후변화의 1번지로서 기후위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지식 습득 과정 	
문화예술교육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을 통해 “나를 되찾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과 구술, 서사 구조를 만드는 과정 등과 같은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기획됨 	

※ 출처: 서귀포문화도시센터(2020) 보고서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② 시사점

창의문화캠퍼스라는 것은 서귀포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어디에나 열려있는 교육의 장이다. 또한 다방면의 수준 높은 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대안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방된 플랫폼 구조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노지의 열린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노지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지문화인 문화교육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화재생을 통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도시재생과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화두가 지방정부의 운영영역에서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지역문화진흥의 범주가 점차 문화도시, 마을 만들기, 문화적 도시재생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융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의 문화 활동을 견인하는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한다.³¹⁾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된 곳 중에서 문화재생을 통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강릉문화재단의 프로그램

①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특성

강릉은 해안 및 산악지역을 포함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역사적 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이다.³²⁾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문화의 가치를 간직한 서부시장을 대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강릉시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시장 내 문화 앵커를 조성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시장의 범위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탐색하고 향유하는 진원지로 발전시키는 시도를 했다.³³⁾ 강릉문화재단의 ‘지금은 서부시대’라는 프로그램은 2019년 19개 지자체가 추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공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사업의 거점인 강릉시 중앙동 서부시장은 문화재생 공간으로서 변화하였다.

31) 김용진(2020),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정책-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pp.21-24.

32) 강릉시청, <https://gn.go.kr>, 검색일: 2021.04.14.

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도시재생 문화에 길을 묻다: 열아홉 이야기로 만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아쉬(ASHH), pp.43-45.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사전 대응을 위해 서부시장 내 상가 매입을 통한 시설의 공유자산화는 민·관의 협력이 이루어낸 원도심 문화 재생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 프로그램은 강릉시 중앙동에 위치한 서부시장을 거점으로 다섯 개의 방 ‘오방’, 네트워크 창의파티, 강릉도시탐사대, 집수리아카데미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³⁴⁾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Ⅲ-5>와 같다.

<표Ⅲ-5> 강릉문화재단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다섯 개의 방 ‘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방, 책방, 주방, 규방, 점방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공간별 활동가 발굴, 공유 공간 거점 활동 및 시민 소모임 지원, 시민생활문화 중심의 리빙랩 조성
네트워크 창의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청년, 문화예술인 등 창의적 사례 발표를 통해 시민과 공유하고 상호 학습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 형성 시민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강릉의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정책과 방향, 지역과 동네 이야기, 문화도시포럼, 강릉의 정체성 등 지역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로 직접 운영방식과 규칙을 마련
강릉 도시탐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문화유산, 건축, 환경, 공공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 강사진과 시민으로 도시탐사대를 구성 지역 내 개선 의제 발굴하여 답사 대상지와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답사하여 개선해 가는 프로그램
집수리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대상 지역 내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스스로 고치는 자생적 주거 환경 개선문화의 확산을 목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관련 전문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심화과정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 출처: 김용진(2020) 논문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② 시사점

강릉의 ‘지금은 서부시대’라는 프로그램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주민과 지역, 주민과 예술가 등 주민이 다양한 주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유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체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³⁵⁾ 이 프로그램은 시장이라는 개방된 노지문화자원에 새로운 옷을 입혀서

34) 김용진(2020), 앞의 논문, pp.28-29.

원도심 일대를 기억하는 사람과 세대가 모이고, 상권과 지역을 연결하여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탐색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후화된 원도심의 노지에 새로운 문화적 거점을 갖춤으로써 문화로 교류하는 시민 네트워크가 조성된다면 원도심을 장소로 하는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나 호응이 높고 효과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천서구문화재단의 프로그램

①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특성

인천은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교류의 중심지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문도시로서, 동북아의 허브(Hub)로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개발과 성장이 함께하는 산업 도시이다.³⁵⁾ 이 지역은 인천항을 두고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중 인천 서구 가좌동 주변은 공장과 관련한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이다. 인천 서구 가좌동 일대의 공장 지대는 주거 지역과 함께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제조업의 쇠퇴로 활기를 잃고 폐공장이 늘면서 낡고 우중충한 공장 지대가 주를 이루고, 허름한 거리는 슬럼화가 되어 점차 인적이 끊긴 구도심이 되었다. 이러한 공장지대도 도시문화의 일부분이며 노지문화자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와 인천서구문화재단은 문화의 가치를 간직한 가좌동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 공장과 사람이 떠난 자리에 옛 코스모 화학공장을 리모델링한 ‘코스모40’이 복합 공간으로 변신하여 인천의 문화 명소로 떠올랐다.³⁷⁾ 인천 서구문화재단은 ‘문화더하기+’라는 명칭으로 문화재생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인천서구문화재단의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Ⅲ-6>과 같다.³⁸⁾

35) 위의 논문, p.29.

36) 인천광역시청, <https://www.incheon.go.kr>, 검색일: 2021.04.14.

3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앞의 책, pp.80-81.

38) 김용진(2020), 앞의 논문, pp.34-35.

<표Ⅲ-6> 인천서구문화재단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신진말문화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진말 농민학당의 의미를 중심으로 문화적 소양 증진 지역주민이 만드는 마을지도
주민생애사 구술 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신진말의 역사와 공장단지의 역사 등 지역주민 구술 채록
공공미술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미술 공모 및 선정, 가이드 맵 제작
문화적 도시재생 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민간단체, 공공단체 등 여러 주체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모델 발굴
호이스트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리모델링 복합 문화 공간 내 시각, 설치 작품 전시회
복합문화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오디오 비주얼(전시), 레코드 페어, 헤븐리 위켄드 소셜(공연)
공장 속 북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모임, 작가와의 대화, 북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운영
크리에이티브 아트마켓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핸드메이드 및 구제 상품 판매 마켓 운영, 대상지 내 공간을 활용한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지식공유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연구자, 활동가, 예술가 및 선도하는 지역의 사례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
공간공유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찾을 수 있는 대중성 강한 행사 기획 (공장 속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행사 등)

※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자료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② 시사점

이 지역의 사례에서는 혐오시설로 여겨지던 노지의 공간과 거리를 문화적 재생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문화더하기+’의 주요 프로그램은 신진말문화학당, 주민생애사 구술 채록, 공공미술프로젝트, 문화적 도시재생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인천서구의 ‘문화더하기+’ 프로그램은 마을역사, 주민, 공공미술과 같은 유·무형의 노지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공감하는 지역으로 재생되었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고양을 통해 지역의 가치까지 부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3) 포항문화재단의 프로그램

①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특성

포항지역은 크게 남구와 북구로 나뉘는데 북구 중앙로에 자리했던 포항시청사가 남구로 이전하며 인구는 물론 포항의 주요 상업, 문화 기능이 신도심으로 옮겨갔다. 이후 포항 북구 원도심의 쇠퇴가 본격화 되었다. 노지 위의 길과 건물자원, 빈집과 점포가 늘어나며 경기 침체로 원도심은 노후화가 83%에 이르렀다.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은 원도심 쇠퇴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2016년 중앙로 298번길 일대에 문화예술 창작지구인 ‘꿈틀로’ 사업을 조성하였다. 빈 건물과 점포를 활용해 회화, 공예, 도예, 음악, 공연, 조각 등 여러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형 공간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포항수협이 50년간 냉동창고 등으로 쓰던 건물은 공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과 휴식, 여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나무터문화놀이창고’가 시민과 예술가에게 개발되었다.³⁹⁾ 전체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Ⅲ-7>과 같다.⁴⁰⁾

<표Ⅲ-7> 포항문화재단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문화다방 청포도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DJ와 함께하는 음악다방, 책낭독극, 청포도극장, 클래식 음악프로그램 등
재난 도시 간 유쾌한 어깨동무 공감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사회적 이슈인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등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문화적 프로그램 국내외 재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화적 재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례 연구
문화반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틀로 내 주민, 예술가, 상인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문화공동체 구축
꿈틀로 일대 인문지리적 연구 및 스토리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쇄 지적도를 활용한 문화적 장소가치 발굴 및 문화 자원 스토리 콘텐츠 개발
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꿈틀로 벌크업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틀로 작가 역량 강화 및 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나무터 문화놀이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수협냉동창고였던 장소의 공간 구성 및 통합문화예술교육

※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자료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39)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앞의 책, pp.54-59.

40) 김용진(2020), 앞의 논문, pp.36-37.

② 시사점

포항문화재단은 꿈틀로의 문화카페 청포도다방을 구축하여 입주 작가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단체 및 문화사업의 활동거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원도심의 노지 거리에 있던 유휴공간들을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한 상태로 재공간화 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또 주목해 볼 것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피해에 대해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시민을 위한 쉼의 공간이 더해지고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공감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지역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⁴¹⁾ 제주 지역의 4.3사건도 지역과 지역민이 겪은 특별한 아픔과 트라우마이다. 포항문화재단의 사례처럼 지역의 아픈 역사를 현안으로 삼아서 심리적·문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제주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항지역을 대표하는 스틸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침체된 원도심과 꿈틀로 일대에 문화예술의 창조적 가치를 더하려는 노력도 주목할 수 있다. 서귀포 지역의 원도심에서도 지역의 자원이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도시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시사점 분석 및 방향성 탐색

연구자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예술재단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민대학의 성격을 띠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문화교육프로그램 사례에서는 주로 인문학과 길을 연결하거나 인문학과 도시문화를 이어 스토리텔링 강연 방식을 취하는 등 ‘인문·문화예술 융합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진화중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장르의 융합을 통한

41) 위의 논문, p.38.

문화예술교육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된 프로그램 사례에서 보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거리나 지역, 공간 등 노지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재생은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하고, 사회·경제의 활성화 효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쇠락한 원도심 지역 내 주요 공간을 발견하여 빈집과 노후화된 건물과 고령의 인구로 흉물처럼 기억되던 도시가 새롭게 단장하고 하나의 문화지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노지문화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지역 문화 교육을 통해서 기존 노지자원의 가치 제고 및 노지의 공간과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지대가 되고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졌다.

기존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서 노지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 장소는 강릉문화재단의 ‘지금은 서부시대’의 사례나 포항문화재단의 ‘꿈틀로’ 사업의 프로그램 사례를 토대로 원도심의 역사적 문화 공간 혹은 거리를 활용하여 구상한다. 둘째, 교육 대상은 ‘창의 문화캠퍼스’나 인천서구의 ‘문화더하기+’ 프로그램 사례를 토대로 학교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셋째, 교육 방법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사례처럼 특강, 탐방, 스토리텔링, 인터뷰, 댄스, 노래, 굿, 연극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현장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넷째, ‘길 위의 인문학’과 ‘살아있는 박물관’ 사례를 토대로 문학, 과학, 생태, 길, 역사 등을 융합한 서귀포의 노지 인문학과 지역의 인물, 예술장르를 결합한 활동과 체험 중심의 창의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방향성 탐색 결과를 <표Ⅲ-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Ⅲ-8>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방향성 탐색 결과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심의 역사적 문화 공간 혹은 거리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를 넘어선 일반시민과 청소년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강, 탐방, 스토리텔링, 인터뷰, 댄스, 노래, 굿, 연극 등 퍼포먼스가 있는 교육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과학, 생태, 길, 역사 등을 융합한 서귀포 노지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인물과 예술장르를 결합한 활동과 체험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 출처: 연구자 구성

2.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시사점 및 방향성 탐색

연구자는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인터뷰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의 강사진 중 서울지역과 제주지역에서 문화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탐색해 보았다. 지역문화전문가 인터뷰 질문 및 대상을 정리하면 <표Ⅲ-9>와 같다.

<표Ⅲ-9> 지역문화전문가 인터뷰 질문 및 대상

인터뷰 질문	(1) 지역문화 교육자의 역할 및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사례는 무엇입니까? (2) 지역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3) 팬더믹 시대를 거쳐 향후 지역문화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4) 문화 소외지역 내지 제주지역에서 문화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주세요.
인터뷰 대상	(A) 박○○, 지역문화활동가: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공동 대표 (B) 유○○, 문화예술기획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공동 대표 (C) 이○○, 전시기획자: 前캘파스프레스 대표, 미술비평가 (D) 이○○, 문화예술교육자: 이미진피스 공동대표, 싱어송라이터

※ 출처: 연구자 구성

지역문화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첫 번째 지역문화 교육자의 역할 및 활동한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A) “지역문화를 교육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계속 읊어내고 관계들을 가꾸고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박○○, 지역문화활동가)

(B) “지금 양천구의 지역 축제를 준비 중인데 축제라는 게 사실 어디서나 하는 축제 같지만, 작지만 일상적인 공간들이 축제의 거점이 되요. 갤러리, 공방, 책방도 있고, 문화적 공간에서 삶을 경작하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이런 삶이 있고 당신들이 더 주목하고 지켜주고 존중해줬으면 하는 삶이 있다.’를 문화라는 형식을 빌려 이야기 하는 거죠.” (유○○, 문화예술기획자)

(C) “제주에서 활동했을 때 경험을 들자면 제주가 특수성이 몇 가지 있는 거 같아요. 전시로 국한해서 말을 하자면 공간이 한정적인 체험 콘텐츠의 경우 도민들은 일단 문화적 관심도가 낮아 보여요. 우리가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만약에 문화 예술 향유층을 끌어들이려고 관광객을 타겟층으로 했는데 전시를 할 때 재밌는 게 날씨가 좋으면 관람객이 0명, 비가 오면 관람객이 100명인 거예요. 관광객 타겟 전시에서 경쟁상대가 자연인 셈이죠.” (이○○, 전시기획자)

(D) “꿈다락 아르떼 사업으로 아이들하고 뮤지컬도 만들고 유명한 문화기획자 선생님들 모아다가 지역 쓰레기 문제해결을 하는 지도 맵핑도 해봤어요. 3년 쪽 이어지면서 교육이 걸만 성장하는 교육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지역문화 교육자는 지역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지역문화 교육이라는데 어떤 콘텐츠 하나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라고 말하는 전체에 포함되어야 할 거 같아요, 지역의 토양이 갖고 있던 원래 생태계를 이해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자나 기획자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로 가야 진짜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이 있어요.” (이○○, 문화예술교육자○)

지역문화기획자의 역할에 대해 A는 민간에서 지역문화를 교육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살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지역문화 교육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에서 활동한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사례에 대해서 B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문화라는 형식을 빌려 이야기하는 지역 축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C는 문화예술 향유층을 늘리기 위한 경쟁력 있는 전시교육을 위해 지역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D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연계 교육 등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문화교육전문가들은 지역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A) “문화적 다양성은 있는 그대로 공존하란 거죠. 근데 공존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건 아닌 거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장,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문화 감수성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슈들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요.” (박○○, 지역문화활동가)

(B)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작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감정을 꺼내는 일들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꺼내는 것이 개인으로 끝으로 가는

것이나 개인의 욕망을 건드는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 같은데 서사로 들어가면 사실 좀 힘들죠. 누군가는 괜찮은데 나는 힘들다고 하면 그것이 존중되긴 해야 되죠. 다양성을 얘기하는 지점이 이 부분 같아요.” (유○○, 문화예술기획자)

(D) “문화감수성이라는 게 전이 되는 거니까 문화기획자가 어떤 감수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만나는 사람들이 감수성을 그대로 느껴지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은 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에 삶이 변하는 지점이 누구에게나 어떤 식의 밀도는 있겠지만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기술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인 개개인이 가지는 감수성이 되는 거죠.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삶의 지속적으로 지켜왔던 삶을 이해하는데서 출발을 한다고 봐요. 요즘에 집중하는 단어가 ‘결’이라는 단어인데, 결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듬어주고 함께 가고, 결은 늘 옆에 있는 거니까. 핵심은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을 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문화와 예술이 서로 가진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구조에서 현대 사회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혐오와 차별과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을 거예요.” (이○○, 문화예술교육자)

지역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생각과 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 A는 문화적 다양성은 있는 그대로 공존하고 공존을 위한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지역의 문화다양성의 이슈에서 문화감수성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B는 지역마다 문화 다양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토양 위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D는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을 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서로가 가진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구조에서 현대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 문화교육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 시대를 겪은 후 향후 지역문화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A)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대부분 행정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특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장르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속도가 다른데 다 똑같은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코로나 이후로 더 이상 인원이나 횟수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 기존의 방식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한지,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박○○, 지역문화활동가)

(B)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각박해지면 문화예술이 멈추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의식주들부터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했을 때 우리가 늘 했던 활동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로나였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일을 했어요.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창의성, 창작성, 전복성, 야생성을 많이 잃고 있는 게 아닌가를 고민했어요. 저희는 온라인에 편승해서 쉽게 익숙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방식을 찾아 나가고 실험을 계속했어요. 코로나 전에도 늘 작게 문화기획을 했었고 코로나 이후로 작은 것이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된 거죠.” (유○○, 문화예술기획자)

(C) “언택트 얘기를 해서 제주시 남성마을의 좁은 주택가에 위치한 새탕라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새탕라움은 전시공간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관람객 받는 것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했어요. 관람객들에게 사전예약을 받고 예약코드를 공유해서 스스로 발열체크하고 전시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관람객들이 같은 시간에는 전시 공간에 많이 안 겹칠 수 있게 사전예약 할 때마다 시간 안내를 해드리고 운영 했거든요. 전시 콘텐츠 자체가 하나를 여러 명이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보면 천천히 자기 시간대로 맞춰서 보면 되는 구조여서 다 다른 시간대에 천천히 와서 관람을 하니까 열흘간 전시한 젊은 작가들 전시에는 이삼백 명까지 다녀가기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다른 기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을 유동적으로 바꾸면 언택트에서 문화예술이 시도할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이○○, 전시기획자)

(D)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죠. 사회에서 예술이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대의 변화가 닥쳐올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데 예술의 상징적인 공동체성을 다른 형태의 공동체성으로 만들어 내려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해요. 가령 소규모로요. 요즘은 최대 맥시мум이 50명이고, 모객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았으니 공연을 지속하되 작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준 가장 좋은 장점은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속성의 원동력이 소수가 돼버린 거죠. 팬데믹은 문화예술을 하는 우리에게 대면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끝까지 찾아내고 노력하도록 위기대처 능력을 만들어 줬어요.” (이○○, 문화예술교육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내 문화교육의 변화 내지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A는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온라인 방식으로 문화교육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극적인 이유나 목표가 충족되는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문화예술교육은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B는 코로나 전에도 작게 문화기획을 했었고 코로나 이후로 소수에 대한 소중함을 문화예술계에서 지향해야 할 시기라고 하였다. C는 전시기획을 할 때 사전예약을 통해 관객을 받아서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고, 위기상황에서도 문화예술은 기획과 운영의 차별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응답하였다. D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문화예술계가 위기대처능력이 생겼고, 소수에 대한 소중함에 주목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네 번째 문화교육전문가들은 문화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면동 지역 혹은 제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A) “제주는 특별한 환경이 있는 거 같긴 해요. 제주의 어떤 특성을 활용 한다는 게 제주에는 선주민들도 있고 이주민도 있고 관광객도 많고, 여러 사람들의 다름이 공존하는 곳이고, 이런 특징을 빌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역이나 공간이나 물리적인 특성을 넘어서서 다양한 존재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움직이고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특성을 반영하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박○○, 지역문화활동가)

(B) “제주의 어떤 지역이 가진 것에 대해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한 일인 거 같아요. 동네의 곳곳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발견하고 싶은 눈부터 장착해야 되거든요? 동네를 발견하는 시간을 보내다보면 지역에서 진짜 관심 있게 보였던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보면서 그것에 관련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가는 작업을 하다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 거, 제일 하고 싶은 거를 들어 올려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사람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과 끊임없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유○○, 문화예술기획자)

(C)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새탕라움이 있는 제주시 지역에서는 남성마을이라고 사실 엄청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가 관덕정 성 바깥이라서 성 안에서 죽은 시체들 태우는 화장터였고, 개천 옆으로 있는 집들도 피난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짓고 낙후되고 지원이 거의 없던 지역이었어요. 여기야말로 문화 소외 지역이죠. 원도심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이라는 게 더 와 닿잖아요. 서귀포 지역에서는 작가의 산책길 같은 곳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즐기시는 분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산책길이 제주도에서 천지연 폭포 지나고 루트가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런 생태 자연이 제주가 가진 이점이라서 미술관이랑 조화롭게 기획

은 되어있는 거 같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거 같아요. 생태와 인문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콘텐츠나 문화기획을 알리는 게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제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알아야 찾아가고, 미술관이 있는 걸 알아야 찾아가고, 무슨 전시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전시도 보고 즐길 수 있잖아요. 앞으로 교육에서 그런 문화예술 정보를 알려주고 발견해서 리뷰해 주는 것부터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을 거 같아요. 제주를 다르게 보는 시점의 변화로 제주의 문화예술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역동성이 일어나는 바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전시기획자)

(D) “예를 들어볼게요. ‘재주도 좋아’라는 밴드 팀이 제주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악기를 만드는 교육프로그램부터 진행했어요. 바닷가나 오름에 가서 수업하기도 하고, 제주도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거죠. 제주의 자연환경이 더 파괴되기 전에 더 많이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그 환경을 방문해보고 그 땅을 직접 디딜 때 느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은 제주자연이 가진, 파괴되지 않고 지켜지면 좋을 참 제주를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는 교육이 중요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는 제주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제주에만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그 자원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정은혜 작가님이 최근에 ‘플라스틱 만나다’라는 예술치료 작업을 매주 바닷가에서 하셨어요. 바닷가에서 플라스틱을 주어본 아이들 머릿속에 ‘내가 버린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를 해치고 있구나.’라고 은연중에 알 수 있죠. 이건 어떤 의식적인 흐름의 교육이 아니라 본능적인 흐름의 교육이죠. 치유의 만다라는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서 ‘우리를 치유하는 작업으로 가자, 우리의 만다라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아이들에게 바다를 막연히 지켜야 된다는 교육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 행위에서 본능적으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제주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자연의 파괴 속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본능적인 성찰, 지켜야 할 제주자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네요.” (이○○, 문화예술교육자)

문화 소외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A는 제주에는 선주민, 이주민, 관광객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름이 공존하는 제주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B는 지역 전체보다 동네를 다니면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응답하였다. C는 제주의 생태와 인문,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지역의 콘텐츠를 알리는 것부터 교육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응답하였다. D는 제주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은 제주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할 수 있고,

제주자연이 가진 파괴되지 않고 지켜지면 좋을 진짜 제주를 학습자와 만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를 분석하고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성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살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지역문화 교육자의 역할이며,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서로가 가진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구조 속에서 일상의 회복을 통해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대의 사회가 열리기 위해서 문화 매개자로서 지역문화 교육자가 존재해야 하며, 문화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지역 특성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예술은 멈춤이 아니라 잠시 쉬므로,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닌 소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지속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 자원의 아름다움 발견을 통해 생태환경과 인문, 문화예술 등이 연계하여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문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방향성 탐색 결과를 정리하면 <표Ⅲ-10>과 같다.

<표Ⅲ-10> 지역문화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방향성 탐색 결과

1	지역문화가 주민들에게 매개체가 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2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며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3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4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5	소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지속해가는 교육프로그램
6	지역자원과 생태환경과 인문, 문화예술이 연계된 융합 교육프로그램

※ 출처: 연구자 구성

IV.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1.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기획: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1) 서귀포시 원도심의 지역·문화적 특성

제주도의 한라산을 기점으로 나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연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지역 차이가 뚜렷하다. 육지와 가장 가까웠던 제주시는 제주의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던 반면 서귀포시는 한라산으로 가로막혀 고립된 지형 탓에 오랜 시간 정의현(성읍)에 속한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 1981년 서귀읍과 중문면이 합쳐져 시로 승격되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통합되어 지금의 서귀포시가 되었다.⁴²⁾ 서귀포시의 인구는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18만2000여 명으로 제주시의 67만4000여 명의 1/3 정도 수준이다. 면적은 870.70km²이며 도전체의 47.1%에 해당한다. 면적 중 경지(259.41km²)와 임야(424.55km²)가 차지하는 비율을 합치면 78.5%에 해당할 정도인데 3.6%에 해당하는 대지(31.70km²)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이므로 노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³⁾

지역의 도시는 역사·전통·정체성이라는 큰 의미를 포함하고 그 지역다움이 담겨져 있다. ‘답다’라는 말은 명사나 명사구 또는 어근 뒤에 붙어서 그것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한 마디로 정체성을 의미한다. 서귀포다운 지역이라는 것은 서귀포 지역의 공간과 사람들의 생활 형태와 가치 등에 대한 정체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나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시의 정체성은 원도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서귀포시 원도심을 서귀포다움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원도심이 신규 개발에 의한 새로운 시가지에 비록 밀려났으나, 초기 도시발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 바로 원도심이기 때문이다.⁴⁴⁾

42) 문신기, 『한겨레』 (2018.07.13.), “오래된 골목과 예술가들의 흔적 사이로 숨반천이 흐르고”, <http://www.hani.co.kr>, 검색일: 2021.01.10.

43) 서귀포시청, <http://seogwipo.go.kr>, 검색일: 2021.04.03.

44) 정소양·유재윤·김태영·김용환(2014), 『원도심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 추진방향』,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p.2, <https://www.krihs.re.kr>, 검색일: 2020.01.15.

현재 서귀포시의 원도심은 법정동상 서귀동 일대, 행정구역상 송산, 정방, 중앙, 천지동의 관할 지역에 해당한다. 본고에서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으로 서귀포시 원도심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성, 다양한 노지문화자원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대상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곳은 중앙로에서 작가의 산책길로 이어지는 거리를 중심으로 이중섭미술관 및 소암기념관, 이왈중 미술관, 기당미술관 및 예술의 전당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섭거리, 작가의 산책길, 유토피아로, 시공원 등의 테마가 있는 거리와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가용할 수 있는 노지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셋째, 현재 서귀포시에서 행정·상업·주거로 떠오르는 지역은 원도심에서 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서귀포 신시가지’이지만, 서귀포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오래된 중심지는 서귀동 일대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서귀포 시민들의 생활사와 가치관이 가장 잘 남아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선정의 이유이다.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 예술가들의 혼이 담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라 할 수 있는 서귀포시 원도심의 지역적 특성을 <표IV-1>의 SWOT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⁴⁵⁾

<표IV-1> 서귀포시 원도심 일대의 SWOT⁴⁶⁾ 분석

	강점(S-strength)	약점(W-weakness)
내부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법정문화도시 선정 ▪ 정부의 지역분권화, 문화비전 2030 ▪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서귀포의 위상 ▪ 유네스코 3관왕 등 관광지로서 위치 ▪ 가용할 생태문화 자원의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관리소홀 및 운영주체 부재 ▪ 홍보의 부재 및 체계성 미흡 ▪ 도로 불편 및 방문객 보행공간 부족 ▪ 문화거점 공간 및 즐길거리 부족 ▪ 주변 올레시장 혹은 아트마켓 부조화
외부요인	기회(O-opportunity)	위협(T-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문화예술의 섬 조성 ▪ 서귀포시 원도심 문화 광장화 추진 ▪ 문화예술 이주민의 증가 ▪ 4차 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문화산업 가치 증대 ▪ 문화예술의 대중성 부각 문화관광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레길 등 걷기 열풍 소멸 ▪ 전국적 유사 길 및 거리 증가 ▪ 타 지역 유사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원도심의 노후화된 거리와 건물들 ▪ 변동이 잦은 서귀포 지역의 기후

※ 출처: 현혜경·김석윤(2020)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5) 현혜경·김석윤(2020),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pp.133-135.
 46) SWOT는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의 4가지 요인별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방법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SWOT” 검색, HRD 용어사전, (사)한국 기업교육학회,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03.21.

강점 요소로는 서귀포시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점, 문재인 정부의 지방 문화분권화 및 문화비전 2030에 따른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점, 유네스코 3관왕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위치에 있다는 점, 가용할 생태 문화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약점 요소로는 기반시설 관리소홀, 운영주체의 부재, 홍보의 부재, 체계성 미흡, 도로 불편, 방문객 보행 공간 부족, 문화 거점 공간 및 즐길거리 부족, 주변 올레시장 혹은 아트마켓과의 부조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기회 요소로는 제주도 문화예술의 섬 조성, 서귀포시 원도심 일대를 문화 벨트로 잇는 문화 광장화 추진, 문화예술 이주민의 증가,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문화산업 가치 증대의 필요, 문화예술의 대중성 부각 및 가족단위의 역사 문화관광의 촉진을 들 수 있다. 위협 요소로는 올레길 등 걷기 열풍 소멸, 전국적 유사 길 및 거리 증가, 타 지역 유사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원도심의 노후화된 거리와 건물들, 그리고 변동이 잦은 서귀포 지역의 기후 변화를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이슈로서 주목해볼 것은 서귀포시는 애니메이션 테마거리 조성과 문화벨트 광장화 추진과 관련한 부분이다. ‘아시아CGI창조센터-매일올레시장-이중섭거리’ 등을 하나로 잇는 문화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⁴⁷⁾ 서귀포시 원도심 문화벨트의 추진 사업은 민관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여 문화로 꽃을 피우는 원도심으로 활기차게 비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구현으로 본다. 이는 서귀포 원도심의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삶과 문화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행정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도시 서귀포시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주민과 방문객을 중심으로 문화재생이 될 수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당연한 절차가 될 것이다.

2)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

송산, 정방, 중앙, 천지동 지역의 노지문화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IV-2>와 같다. 표에서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으로는 감귤, 노인성(老人星), 서귀포층 패류

47) 김찬우, 『제주의 소리』 (2020.10.07.), “서귀포시, 원도심 잇는 ‘문화광장 조성사업’ 본격 시동”, <http://www.jejusori.net>, 검색일: 2021.01.04.

화석, 천지연폭포, 서귀진지, 외돌개, 자구리공원, 서북기념관과 서북전설, 기당미술관과 변시지, 이중섭미술관과 이중섭거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현중화와 소암기념관, 서귀포칠십리축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표Ⅳ-2> 서귀포시 원도심지역 노지문화자원 현황48)

지역	구분	내용	
송산동	자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방폭포: 도지정문화재 제 44호('95), 서불과지 전설 새섬: 서귀동 산1번지 문섬: 서귀동 산4번지, 도지정문화재 제45호('95) 	
	산업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귤, 수산물, 해양산호초 등 	
	시설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북전시관: 18,750㎡, 개관('03.9.26), 무료개방('11.5.1) 서귀포항: 개항('27.5월), 무역항지정('91.10월), 109,000㎡ 	
	역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지정(09.4.28), 횃집(20개소)등 음식점거리 솔동산 문화의 거리: 지정('09.4.28), 900m 서귀진지: 도지정문화재지정('00.11.1), 7,670㎡ 	
	행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칠십리축제, 서귀포 자구리축제 등 	
중앙동	시설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행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레시장 올레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서귀포 봄맞이축제 등 	
정방동	자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산이동산 연디동산 제석동산 고냉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수케 구린샛길(끼) 뱃머리동산
	산업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귤 	
	시설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모시공원(서귀동 237번지) 서귀본향당(서귀동 535번지) 제주올레 6코스 경유지 기당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섭생가 이중섭미술관 소암 현중화기념관 샛기정
	행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봄맞이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등 	
천지동	자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지연폭포 [천연기념물 제379호] 외돌개 삼매봉, 삼매봉 전망대/노인성(老人星) 관측 	
	산업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천지연 난대림 무태장어서식지 [천연기념물 제27호] 담팔수 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63호] 	
	시설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걸메생태공원 아랑조을거리 칠십리시공원 	
	역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연교 서귀포층 패류화석 	
	행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봄맞이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등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15)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48) 제주특별자치도(2015), 『제주특별자치도 마을특성 및 실태조사 용역 (서귀포시)』, pp.449-477.

3) 서귀포시 원도심의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구상안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문화는 문화원형 요소로서 빛, 물, 돌, 바람, 길,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여섯 가지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표Ⅳ-2>에서 살펴본 서귀포 원도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의 구상안을 구체화해 보았다. 교육프로그램 구상안은 <표Ⅳ-3>과 같다.

<표Ⅳ-3>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구상(안)

요소	노지문화	서귀동 지역자원	문화자원 분류
빛	노지에 내리는 '빛'	감굴	노지산업자원
		老人星	노지자연자원
물	노지에 스며든 '물'	서귀포층 패류화석	노지역사자원
		천자연폭포	노지자연자원
돌	노지에 박힌 '돌'	서귀진지	노지역사자원
		외돌개	노지자연자원
바람	노지에 부는 '바람'	서귀포칠십리축제	노지행사자원
		서북기념관, 서북전설	노지시설자원, 노지스토리자원
길	노지로 이어진 '길'	이중섭거리	노지역사자원
		중정로	노지역사자원
사람	노지로 모여든 '사람'	기당미술관, 변시지	노지건축자원, 노지인물자원
		소암기념관, 현중화	노지건축자원, 노지인물자원

※ 출처: 연구자 구성

2. 교육 목표: 노지문화의 가치 제고·문화공동체 형성·주민 삶의 질 고양

지역문화 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자아표현, 통합적인 사고, 다양성의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성숙해

가고, 지역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정하였다.

1) 노지문화의 가치 제고

지역은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다.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근간이 되는 노지문화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자원의 발굴과 지역문화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불러왔다. 지역의 주민, 생물, 환경 및 사물 등의 자원들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노지문화의 제고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문화원형 요소를 중심으로 한 노지문화는 교육적 가치가 있으므로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은 스스로가 속한 지역의 자연, 역사, 마을, 길, 사람 등을 이해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자원 및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노지문화의 가치를 제고한다면 지역문화를 보전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과 노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지혜로운 문화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2)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

지역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적 소양과 의식을 다진 주민과 세대가 모여 문화자치가 이루어지고 문화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그 지역의 문화는 창조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⁴⁹⁾ 문화민주주의를 전제하여 문화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소양 교육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지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교육은 지역적·문화적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노지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재발견하면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

49) 서순복(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p.31.

하고 존중할 때, 나와 다른 타인과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의식을 기를 수 있다. 이 사회구성원은 문화교육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문화적 기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감과 연대의식은 결국 공동의 문제 해결 및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고양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적 도시재생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해 경제적인 소득 창출과 동시에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애향심의 고취, 유대감 강화 등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것이 문화가 지닌 힘이며 지역과 주민의 삶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교육을 통한 성숙한 문화의식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역량을 높여 준다. 더불어 지역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 강화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의 문화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주민들은 지역사회를 행복한 삶과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할 것이다. 문화를 통해 지역이 재생되고 도시가 활성화 된다면 행복한 문화도시의 주민으로서의 삶의 질도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결하여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의 구상안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빛·물·돌·바람·길·사람의 노지문화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노지문화 자원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교육 내용: 빛·물·돌·바람·길·사람의 노지문화를 중심으로

1) 빛⁵⁰⁾의 의미

50) 시각 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물체가 광선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나타내는 빛깔/ 표정이나 눈, 몸가짐에서 나타나는 기색이나 태도/ 무엇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찬란하게 반짝이는 광채/ 희망이나 영광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빛깔'의 뜻을 나타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2021.04.03.

빛은 문화원형 요소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창조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빛과 함께 시작되었다.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 속 어둠을 헤치고 빛이 내리는 세상 밖으로 나와 생을 시작하고, 생을 마칠 때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소멸한다.⁵¹⁾ 빛을 단순하게 햇빛이나 형광등 불빛 등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말 ‘빛’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빛은 과학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고, 태도나 분위기를 나타내며 감정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종교적으로 영성의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빛은 빛깔을 뜻하기도 하며, 어둠과 대비되는 의미로 쓰인다. 즉, 빛은 유형의 자원이면서 무형의 자원이 된다. 빛의 과학적 속성을 가지고, IT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여 탄생한 것이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이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전시체험관 <빛의 벙커>도 이러한 빛의 원리에서 탄생되었다. 빛에 대한 다각적인 의미를 토대로 노지문화를 살펴보고 서귀포 원도심의 자원과 연결해서 지역문화 교육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노지에 내리는 ‘빛’

노지에는 태양 빛이 내려 하루가 시작되고, 태양이 지면 어둠이 내려 마무리된다. 이 빛은 탄생이자 죽음이며 기쁨이자 슬픔을 상징한다. 빛의 존재와 부재가 갖는 이런 대립적 속성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대비(對比)한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비유할 수 있겠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대립시키는 이 같은 이원론(二元論)은 서양사상의 한 축을 이루었다. 실제 빛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모순적인 존재지만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에 내리는 빛이 상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지의 빛은 식물 존재의 원천이 된다. 빛에 의한 광합성으로 생명체가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빛의 에너지는 노지 생명의 핵심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빛은 노지의 수많은 자원에게 생명이자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 노지에 어둠이 내렸을 때 비로소 별빛의 존재도 보인다. 별을 보려면 주변이 어두워야 잘 보이기 때문에 산 정상부근이나 인적이 드문 노지에서 바라보아야 더욱 반짝이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별빛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찬미하며 시를 짓기도 한다. 별빛 자체에는 감정이 없지만 그 별을

51) 김상욱(2015), 「빛의 희노애락」, 『지식의 지평』, 19, p.1.

보거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별빛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신성하고 영롱한 기운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빛이 가진 특별함이다. 그럼 노지에 내리는 빛을 주제로 서귀포시 원도심의 대표 과일인 황금빛 열매 ‘귤’과 삼매봉에서 관측된다고 전해지는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노인성(老人星)’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황금빛 꿈의 열매 ‘감귤’

감귤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제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서귀포의 감귤은 특히 맛과 품질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다.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제주감귤박람회도 주최한다. 제주 감귤이 가지는 은유적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귤의 산업자원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탐라에서는 백제나 신라에 감귤을 공물로 바쳐왔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를 거쳐 조선에까지 이어졌다. 문헌상의 감귤에 대한 기록은 고려 문종 6년(1052) ‘탐라에서 세공하는 귤자(橘子)의 수량을 1백포로 개정한다.’라는 대목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문헌 이전에도 감귤을 진상하였을 것이다. 귤 바치기가 ‘천년 풍습’이었기 때문이다. 감귤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걷어갔다. 국가적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과원의 감귤나무에서 그 숫자 하나하나까지 세어서 관리·감독하였다.⁵²⁾ 감귤 진상과 관련해서 이형상의 『탐라순력도⁵³⁾』에 있는 <감귤봉진(柑橘封進)> 그림을 보면 각종 감귤과 한약재로 사용되는 귤껍질을 봉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감귤봉진>은 망경루 앞뜰에서 조정으로 올려 보낼 귤을 선별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그림이다. 수집된 귤을 여인들이 선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감귤을 담은 나무상자를 제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⁵⁴⁾ 그 과정을 보면 복잡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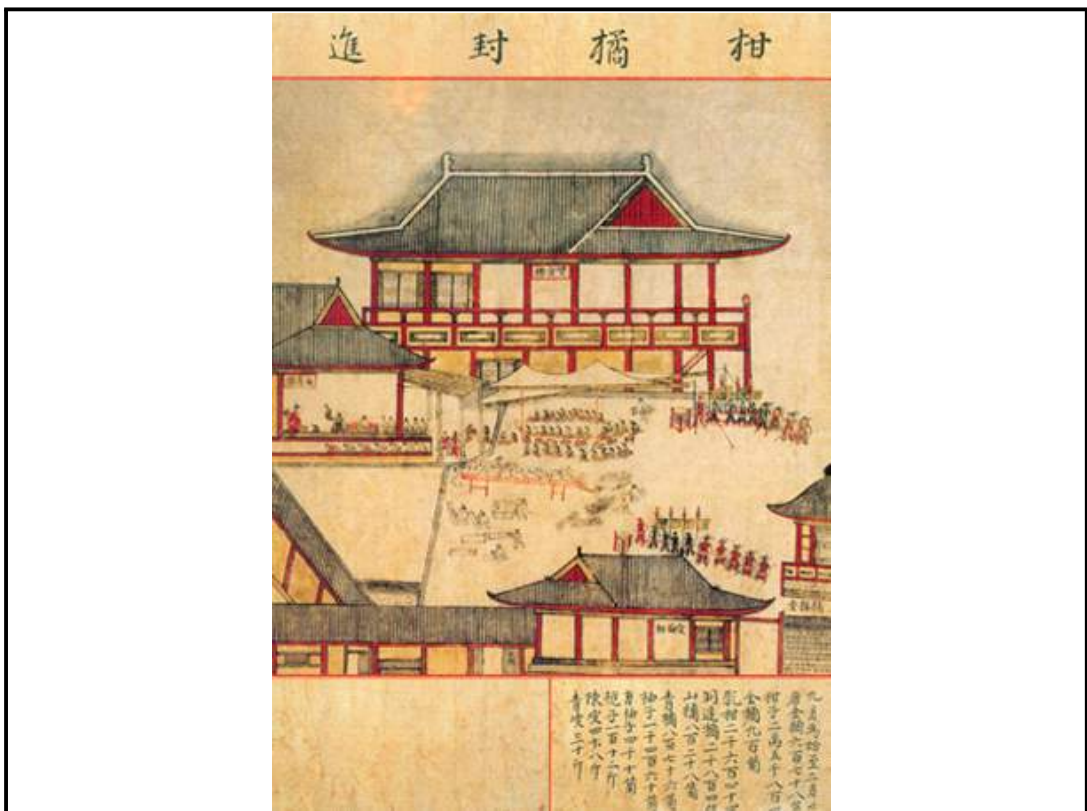
52) 주강현(2011), 『제주 기행: 어느 인문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올레, 돌쟁이, 바람의 풍경들』, 웅진지식하우스, pp.131-135.

53)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조선 숙종때인 1702년에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에 부임하여 제주도내 각 고을을 순력하면서 당시 거행했던 여러 행사장면과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제주목 소속 화공(畫工) 김남길(金南吉)로 하여금 40폭의 채색그림으로 그리게 한 화첩이다. 감귤박물관, <https://culture.seogwipo.go.kr/citrus/index.htm>, 검색일: 2021.06.13.

54) 김형훈, 『미디어제주』 (2016.03.06.), “생과도, 껍질도 진상될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아”, <http://www.mediajeju.com>, 검색일: 2021.04.04.

절차와 민관의 많은 사람들이 차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귤 진상은 9월부터 매일 10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귤 진상은 백성들에게는 착취였으며, 고단한 과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에서는 민가의 귤나무를 일일이 조사하여 관리하고 낱알을 일일이 세어 세금을 때리는 치졸한 수법까지 썼다고 한다. 바람과 비에 손상되거나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 먹으면 집주인이 책임지거나 대납해야 했으니 백성들은 귤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⁵⁵⁾

<그림 IV-1> 탐라순력도 감귤봉진(柑橘封進)



※ 출처: 감귤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IV-1>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왜 귤을 심지 않으려고 했을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고되고 복잡한 과정이 한 눈에 보인다. 이렇게 귤은 역사적으로 세도가들에게는 욕망을 부추기는 황금의 열매였으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꺾박을 준 원한의 과일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귤은 꿈의 과일에서 원한의 과일이 되어버린

55) 주장현(2011), 앞의 책, pp.135-136.

과일이었던 것이다. 이런 감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로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11년 온주 밀감이 등장하면서이다. 이후 여타의 감귤나무도 들어오는 한편, 도내에서 묘목을 생산·보급케 됨으로써 감귤재배 농가와 재배지 면적이 점차 증대되어 나아갔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증식 붐이 조성되고, 1970년대에는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감귤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한 정부의 정책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제주감귤은 대량 상품생산과 소비의 대중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 감귤은 최고로 비싼 과일에 해당하여 감귤재배 농가는 높은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제주 농촌마을이 전국의 농촌마을 가운데 1년 가계소득을 가장 많이 거둔 곳으로 여러 번 선정되었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제주사회는 감귤재배를 통해 얻어 들인 소득에 힘입어 경제적 풍요를 이루기 시작했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써 제주의 감귤나무는 1970년대 들어와 ‘대학나무’라는 별칭도 지니게 되었다. 이 말은 제주의 부모들이 소규모의 감귤 과수원일지언정, 자녀들을 육지부의 대학에 보낼 때 들어가는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경비를 감귤나무 재배에서 얻은 소득에서 충당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생겨났다.⁵⁶⁾ 제주의 감귤은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껏 제주의 상징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지·발전되어 온 열매이다. 즉, 황금 빛 꿈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다. 더구나 감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은 서귀포 감귤이다.

오늘날 감귤의 재배는 노지와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온주밀감 위주의 단작에서 벗어나 제주도 농민들은 한라봉에 이어, 천혜향, 카라향 등 다양한 귤 품종을 재배하여 맛과 향을 높였다. 종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농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제주 주민들에게 감귤은 과거에는 진상에 고통을 안겨준 원한의 대상에서 이제는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황금빛 꿈의 과일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감귤 재배 농가와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품종의 개발과 더불어 감귤과 관련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박람회 개최하는 등 대외적 지원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감귤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제주의 역사·지리·생태·과학·사회상까지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56) 위의 책, pp.142-144.

(3) 무병장수의 빛 노인성(老人星)

제주의 밤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별을 관측할 수 있다. 바로 ‘노인성(老人星)’이다. 별자리로는 남극성인데 인간의 무병장수를 관장한다하여 노인성·수성·십자성이라고도 불린다. 영어명으로는 ‘카노푸스’ 자리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신성화되어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귀족사회 문화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신성(神聖)한 별자리이다. 노인성은 위도 남위 52도에 위치하는 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측하기 어려운 별이다. 오직 한라산과 서귀포지역 정남쪽 수평선이 보이는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⁵⁷⁾ 조선시대에 사대부 문학에서 축수(祝壽)나 만시(輓詩)의 소재로 정형화 되었다.

제주와 노인성은 강력한 표상적 연계를 이룬 뒤에 위무, 자족, 의지 발현 등 다양한 체류 소회를 표현하는 문학적 소재로 변주되었다. 제주 체류를 경험한 사대부들은 그들만의 특정 지향성 혹은 계층 의식을 노인성에 투영하였고 노인성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동인이 되었다. 조선 내 사대부층의 노인성에 대한 인식은 민간 영역으로 스미어 당선양과 설화에도 흔적을 남겼다. 이 변화의 흐름은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이 맞물려 형성되었다.

조선조 제주는 타관(他官),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유배지, 경승(景勝)을 갖춘 유람지라는 복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⁵⁸⁾ 그러던 중에 조선조 제주로 온 유배인들은 노인성을 암담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상서로운 신호의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자위와 자족의 대상, 노인성을 숨겨 왔던 자아상을 드러내고 끝내 좌절된 정치적 회한을 풀어내는 문학적 수단으로 형성화하였다. 결국 조선조에 들어 제주(한라산)과 노인성이 견고한 관계를 맺게 된 후, 사대부층이 공유한 노인성에 대한 인식은 담론화 되어 왔다. 노인성은 단순히 서귀포에서 관측되는 별이 아니라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이 맞물려 형성된 소산이기에, 외부로부터 형성된 제주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로서도 의의를 갖는다.

57) 최현식, 『제민일보』 (2020.12.16.), “노인성 카노푸스”, <http://www.jemin.com>, 검색일: 2021.04.03.

58) 이현정(2020), 「사대부의 제주 체험에 따른 노인성(老人星) 인식의 변화 양상-조선조 16~19세기 체류 기록과 한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5, pp.171-172.

<사진 IV-2> 삼매봉 남성대 전망대와 카노푸스 안내판



※ 출처: 연구자 촬영(2021.04.08.)

현재 <사진 IV-2>와 같은 모습으로 출입금지가 되어있지만, 현재 서귀포시 삼매봉 남성대 전망대에서 ‘무병장수의 상징보기 관측행사’를 통해 별해설사들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원형의 ‘남극노인성제’를 재현하여 호응을 받고 있다.⁵⁹⁾ 노인성은 전설이나 이상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서귀포시 삼매봉의 노지에서 1~3월 사이 관측되고 있는 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성과 연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과거에 노인성의 별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었던 조선조 사대부들의 문학사적 가치와 영원까지 빛에 투영되어 있다. 노인성을 찬미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병장수의 별이 지닌 은유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천문과학을 융합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2) 물⁶⁰⁾의 의미

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문화원형 요소이다. 세계적인 고대 문명의

59) 최헌식, 『제민일보』 (2020.12.16.), 앞의 기사.

60) 자연계에 강, 호수, 바다, 지하수 따위의 형태로 널리 분포하는 액체/ 순수한 것은 빛깔, 냄새, 맛이 없고 투명함/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로, 어느점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고 끓는점 이상에서는 수증기가 됨/ 공기와 더불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못, 내, 호수, 강, 바다 따위를 두루 이르는 말/ ‘조수’를 달리 이르는 말/ 음료수나 술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물감이 물건에 묻어서 드러나는 빛깔/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 사물 또는 느낄 수 없어도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 일체의 것.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2021.04.03.

발상지는 모두 4대강 유역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주변에서 정착생활이 시작되었고, 마을이 형성되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인체는 모체의 자궁 속 생명의 안식처인 양수라는 물에서 자라나고 탄생한다. 눈에 보이는 물의 이미지는 액체 상태이며, 마시고, 뿌리고, 흐르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은 과학적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고,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못, 내, 호수, 강, 바다, 차, 음료수, 술을 두루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물은 유형의 자원이면서 무형의 자원이 된다. 물은 시간적 변화상인 ‘흐름’과 공간적 변화상인 비, 구름, 수증기와 같은 ‘순환, 본질적 물의 풍경에 신성함을 부여한다. 은유적 차원에서 ‘정화’ 혹은 ‘재생’, 그리고 신의 세계와 인간세계를 나누는 황천강과 같은 ‘경계’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최근에는 물 부족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물은 보존해야 할 환경자원으로서 부각되었다. 계속해서 물에 대한 다각적인 의미를 토대로 노지에 스며든 물을 살펴보고 서귀포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과 연결해서 교육적 소재로서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노지에 스며든 ‘물’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한다. 물이라는 기본 요소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흐름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변화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일 수도 있지만, 소멸과 죽음일 수도 있다. 물 스스로가 이루어내는 순환과 자유로운 변화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상반된 면을 동시에 갖는다.⁶¹⁾ 서양에서의 물은 살아있는 물질로써 생명수의 역할과 종교적으로 신성함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의미의 상징적인 존재로써의 역할을 해왔다. 물이 종교적인 정화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기독교에서 세례의식, 성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심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제로 영혼을 부활시키고 병을 다스리며 새로운 생명을 주는 성스러운 존재가 바로 물이다.⁶²⁾ 한국에서의 물은 풍수 지리적으로 산과 함께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의미로 표현되며 마을 입지의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61) 김설미 (2020), 「<겨울왕국2>에 나타난 ‘물(水)’의 이미지를 활용 한 서사 진행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59, p.353.

62) 위의 논문, p.347.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정신적·역사적·생태적 특성은 비중이 크다 할 수 있다.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에 스며든 물은 큰 비나 눈(雪), 눈물, 홍수, 강, 바다, 샘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때 물은 거대한 한 덩어리이면서 여러 갈래의 줄기로 나뉘어져 흐른다. 흐르는 동안 모습도 변하고 머무는 장소도 다르지만 결국 다시 큰물로 합해진다. 아울러 물은 노지의 수많은 자원에게 생명의 원천이자 저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제주도는 섬으로서 바다라는 큰물에 둘러싸여 있고, 화산과 현무암이라는 독특한 지형으로 삼다수라고 부르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제주도의 마을 주변에는 용천수가 존재했고 생활문화를 형성해 왔다. 노지에 스며든 물을 주제로 제주 화산섬 생성의 비밀을 품은 ‘서귀포층 패류화석’⁶³⁾과 서귀포 관광 명소인 ‘천지연폭포’⁶⁴⁾를 살펴보겠다.

(2) 화산섬의 시작, 서귀포층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귀포층은 제주도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입구에서 서쪽으로 남성리 해안절벽을 따라 약 1.5 km, 약 40m 두께로 노출되어 있다.⁶⁵⁾ 서귀포층은 약 200~300만 년 전에 화석생물과 함께 쌓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00m 정도 솟아오른 곳이 물결로 깎여 절벽으로 변했다. 발견된 화석으로는 부족류, 달팽이·전복·우렁이와 같은 복족류, 굴족류, 완족류, 성게·해삼·불가사리 등의 극피동물, 산호화석, 고래와 물고기 뼈, 상어이빨 등이 있다. 조개화석은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근처 해안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더 따뜻한 남쪽바다에서 발견된다. 이는 서귀포층이 쌓일 당시의 바다가 지금보다 따뜻했음을 말해준다.⁶⁶⁾ 서귀포층의 불투과성은 지하수와 용천수 생성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제주인의 물문화 형성에 중요한 보고이다. <사진IV-3>과 같은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중로 43에 위치하며, 천연기념물 195호로 지정되어 있다.

6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중로 2-15에 위치한다.

65) 이용남·이항재·황재하(2014), 「제주도 서귀포층에서 산출된 백상아리 이빨」, 『지질학회지』, 50(5), p.643.

66)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 검색일: 2021.04.04.

<사진 IV-3> 서귀포층 전경과 서귀포층 패류화석 안내판



※ 출처: 연구자 촬영(2021.04.08.)

현장을 방문해 보면 다양한 바위들에 남겨진 패류화석 흔적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당시의 환경을 짐작케 하는 소중한 역사자원이다. 서귀포층 패류화석은 이곳에서 살던 바다생물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제주 화산섬의 시작을 밝혀줄 자원으로 생태적·지질학적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

(3) 호연지기를 채우는 천지연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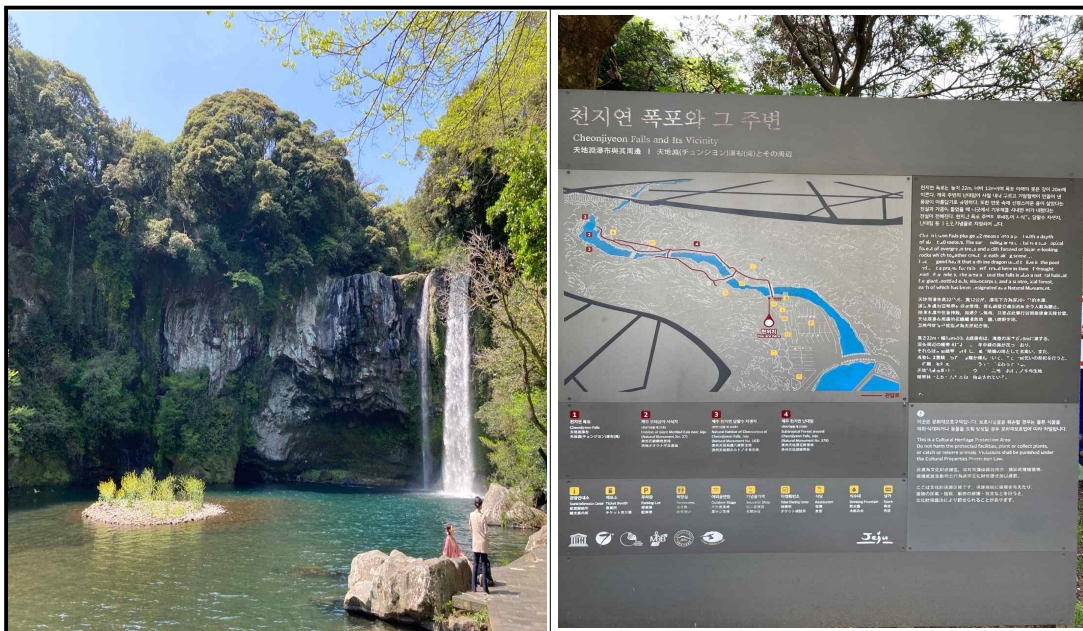
천지연(天地淵)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연못이라는 의미이다. 이 폭포는 높이가 약 22m, 폭 12m이며, 폭포아래는 수심이 20m에 이르는 깊은 웅덩이가 있다. 천지연폭포뿐만 아니라 제주의 다른 폭포들은 모두 남쪽 해안을 따라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 화산섬의 독특한 지질학적 변화과정의 결과이다. 폭포의 하부는 화산물질과 해양 퇴적물로 구성된 서귀포층이 분포하고, 상부는 약 40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서귀포층을 덮고 있다. 천지연에 서식하는 생물로 유명한 무태장어는 뱀장어과에 속하는 열대성 대형 물고기로서 아프리카 동부에서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일본, 대만 등에 걸쳐 널리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종에 속하므로 무태장어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 제2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⁶⁷⁾

천지연폭포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제379호로 지정된 천지연 난대림이 위치하고

67) 제주지질공원, <https://www.jeju.go.kr>, 검색일: 2021.04.04.

있다. 이곳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 온난한 기후대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 뻗뻗히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다. 이 난대림을 구성하는 식물로는 희귀식물인 솔잎난과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까마귀쪽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새덕이, 사스레피나무, 후추, 보리장, 송악, 마삭줄, 제비꼬리고사리, 담팔수 등과 많은 종류의 고사리들이 자라고 있다. 희귀식물인 솔잎난과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많은 종류의 나무와 고사리 종류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록수림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⁶⁸⁾

<사진Ⅳ-4> 천지연 폭포 전경과 안내판



※ 출처: 연구자 촬영(2021.04.08.)

천지연은 현재 <사진Ⅳ-4>와 같으며 서귀포 주민들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다음으로 꼽는 대표적인 명승지이다. 힘찬 물줄기가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되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으로서도 생태·지질·관광의 측면에서 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68)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 검색일: 2021.04.04.

3) 돌⁶⁹⁾의 의미

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문화원형 요소이다. 인류가 돌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랜 일이다. 구석기시대를 거쳐 오며 돌은 성벽, 건축물, 석기, 조각품 등이 인류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⁷⁰⁾ 흔히 돌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까맣고 단단하고 땅에 굴러다니는 암석덩어리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돌은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로 과학적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고, 상태나 크기를 나타내어 분리되기도 한다. 타인을 낮추어보는 감정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돌은 유형의 자원이면서 무형의 자원이 된다. 돌의 가장 큰 특징은 작고 가늘게 세공이 된다는 것이다. 즉, 돌을 문치거나 쌓으면 단단하게 고정하여 변형이 가능하며 새로운 도구가 되기도 한다. 돌에 대한 의미와 변용을 토대로 노지에 박히고 굴러온 ‘돌’ 문화를 통해 서귀포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과 연결해서 지역문화 교육의 소재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노지에 박힌 ‘돌’, 구르는 ‘돌’

옛날 어느 호사가가 불운을 안고 살아가는 제주의 풍정을 석다(石多), 풍다(風多), 여다(女多)라 하여 삼다(三多)라 말했다고 한다. ‘돌이 많다’와 ‘바람이 많다’는 제주 자연의 불모성(不毛性)을 나타낸다. 제주인들은 이 불모의 자연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 그 점은 제주의 역사와 돌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는 ‘돌을 다루고 돌과 싸우면서 돌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어 이룩해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돌에 대한 표현에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적 특질이 함축되어 있다. 자연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돌과 상대하며 돌을 다루어온 역사라는 점에서 치열성이 담겨져 있고, 그 결과로

69)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 바위보다는 작고 모래보다는 큰 것/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바둑을 둘 때에 쓰는 둥글납작한 물건, 흰 돌, 검은 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2021.04.03.

70) 김종석(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 문화-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형성된 제주의 문화에는 돌과 같은 강인함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다.⁷¹⁾

불모의 환경을 극복하고 돌문화를 이뤄낸 제주인들은 돌 구들 위에서 태어나고 죽어서는 산담에 둘러싸인 작지왓(자갈밭)의 묘 속에 묻힌다. 살림집 벽체가 돌이며, 울타리와 올레, 수시로 밟고 다니는 잇돌(디딤돌)이 모두 돌이다. 산길은 물론 밭길, 심지어 어장길도 모두 돌밭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주의 돌담에는 집을 둘러싼 돌담인 축담(집담), 집 입구에서 정낭까지 올레길에 쌓여진 올레담, 들을 둘러 경계를 이루는 돌담인 밭담, 신당을 둘러싼 돌담, 무덤을 둘러싼 돌담인 산담, 목장을 둘러싼 돌담인 잣담, 바다를 둘러싼 돌담인 원담(갯담)이 있다. 또한 섬 전체를 둘러싸고 방어를 담당했던 환해장성과 3읍 9진성, 봉수와 연대, 그리고 동자석, 하르방 등도 모두 돌로 조형된 것이다.⁷²⁾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에 구르는 돌이 상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지 한 구석에 박혀있던 돌맹이 하나하나가 모여 돌챙이의 손끝을 거쳐 돌은 쓸모 있는 생활도구로, 과학적 조형물로 발전하며 현재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남아있다. 자연 그대로의 크고 작은 돌들이 섞인 돌담은 언뜻 허술해 보이지만, 돌담 사이에 생겨난 구멍들이 바람의 강도를 낮추는 기능도 한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은 돌담의 미학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에 있는 돌문화유산인 노지에 구르는 돌 ‘외돌개’⁷³⁾와 노지에 박힌 돌 ‘서귀진지’⁷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바다 위 외로이 솟은 외돌개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외돌개는 수직의 해식절벽이 발달한 주변 해안과 해식동굴이 함께 어우러져 특이한 해안 절경을 연출하는 명승지로 관광명소이다.⁷⁵⁾ 외돌개는 높이는 20m, 폭은 7~10m로 삼매봉 남쪽 기슭에 있다. 외돌개라는 이름은 바다 한복판에 홀로 우뚝 솟아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1) 현길언(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pp.146-147.

72) 주강현(2011), 앞의 책, pp.44-46.

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91에 위치하며, 명승 제79호이다.

74)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717-4번지에 위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5호이다.

75)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 검색일: 2021.04.04.

15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섬의 모습이 바뀔 때 생긴 바위섬으로 꼭대기에는 작은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자생하고 있다. 등정하기에는 위험한 기암절벽의 형태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⁷⁶⁾ 외돌개와 관련된 전설로는 고려말 최영장군이 제주특별자치도를 강점했던 목호(牧胡)의 난을 토벌할 때 외돌개 위에 있는 범섬이 최후의 격전장이었는데, 전술상 외돌개를 장대산 장수로 치장시켰다고 한다. 그러자 목호들이 이를 보고 대장군이 진을 친 것으로 오인하여 자결했다 하여 ‘장군석’이라고 부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또한 설문대할망의 아들들인 오백장군의 막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다 굳어져 외돌개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고,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돌로 굳어 외돌개가 되었다는 할망바위 전설도 전한다.⁷⁷⁾

<사진Ⅳ-5> 외돌개 전경과 안내판



※ 출처: 연구자 촬영(2021.04.08.)

외돌개는 <사진Ⅳ-5>와 같이 서귀포 앞 바다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해식절벽이면서 바다 위 우뚝 선 바위섬의 모양을 하고 있고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다양한 스토리를 품은 전설의 바위다. 서귀포를 대표하는 돌문화자원인 외돌개는 과거 화산 폭발로 노지에 굴러온 ‘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학적 형성 원리와 전설을 스토리텔링 한다면 교육의 소재로서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76) 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 검색일: 2021.04.04.

77)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s://www.jeju.go.kr>, 검색일: 2021.04.04.

(1) 서귀포 시민의 수문장 서귀진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된 서귀진지는 탐라십경(耽羅十景)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제주의 대표적인 방어유적으로 3성(三城) 9진(九鎭)에 속하며 정의현 관할이었다. 서귀진지에 대한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세종대왕실록』(1439. 2. 4) ‘서귀방호소에는 성곽이 없다고 하여 성을 쌓도록 요청하니, 허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기록으로 보아 최초 축성은 1439년대로 판단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서귀성은 석축으로 주위가 161척(48m), 높이 5척(1.5m)이라 기록되어 있다. 서귀진지는 본래 홍로천에 있었으나 조선 선조 23년(1590) 이옥(李沃) 목사가 현재 위치로 옮겨 축성했다. 규모는 주위 251m, 높이 3.6m에 이르는 진성이었다. 1920년대 한일합방 시기까지 기와 건물 3동과 성담이 남아 있었다. 일본군 관청으로 사용되어지다가 제주도 4·3사건이 발생하자 이곳의 성담을 헐어 마을을 방어하는 축성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주거용 건축 용도와 ‘밭담’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지금은 당시의 성담이었던 담들이 ‘우잣담’과 ‘성굽담’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⁷⁸⁾ 2000년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55호)가 된 이후 부지를 매입해 2013년 서귀진지 사적화 사업에 따라 정비됐다.

<사진Ⅳ-6> 서귀진지 전경과 안내판



※ 출처: 연구자 촬영(2021.04.08.)

서귀진지는 근현대 역사에서도 많은 훼손과 변천을 겪으며 수난의 길을 걸어

78)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 검색일: 2021.04.05.

왔으나 현재는 <사진Ⅳ-6>와 같이 복원 및 정비되어 있다. 경관과 관련하여 영주12경에 ‘서진노성(西鎭老星)’이라 하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솔동산 위에 축조된 서귀진지에서 노인성을 바라보는 모습을 승경으로 꼽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름답고 신성함이 깃든 장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곳은 서귀포 시민의 수문장으로서 마음속에 세워져있는 노지에 축성된 박헌 ‘돌’ 문화유산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서진노성의 승경을 가진 건축유산으로서 축성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적 수난, 천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지닌 진성으로서 인문학적 가치를 교육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4) 바람⁷⁹⁾의 의미

바람은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격동을 가져온 문화원형 요소이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바람은 문명을 일으키고 전해주는 동력이 되어왔다. 세계의 노지 곳곳에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은 없다. 바람은 기압의 변화, 공기의 흐름이나 세기,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나타낼 때도 쓰이는 말이다. 물론 산들바람이나 폭풍, 혹은 바람 잘 날 없다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바람’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과학적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고, 상태나 크기에 따라 변화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감정이나 마음을 드러낼 때도 쓰이며, 사회적인 유행이나 분위기, 사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노지에 부는 바람을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과 연결해서 지역문화 교육의 소재로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노지에 부는 ‘바람’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바람과 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여름철 태풍뿐만 아니라,

79)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살아가면서 겪는 풍파 또는 풍상/ 공이나 튜브 따위와 같이 속이 빈 곳에 넣는 공기/ 남을 부추기거나 일을 빼는 일/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분위기, 사상적인 경향/ 사람이나 사물의 작용, 움직이는 기운, 기세 따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2021.04.03.

겨울철에 상시적으로 부는 바람은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세차다. 제주의 바람은 주로 겨울철과 봄철에 불며 동부지역에는 북서풍, 서부지역에는 북풍 계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으로는 뒤편바람, 들벼름, 섯가리, 도갱이주제, 강챙이, 겁선새 등 독특한 것도 있고, 멩지벼름, 지름새, 실벼름 등 미풍에서 폭풍까지 종류만 40가지가 넘는다.⁸⁰⁾ 환경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인의 의식주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강하고 세찬 바람을 극복하고자 형성된 문화적 특징은 제주 섬 문화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의 바람을 대표하는 문화로는 ‘영등굿’을 빼놓을 수 없다. 제주섬의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정월초하루에 바람의 신 영등에게 안녕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며 제를 올린다. 오랜 세월 제주인들의 바람이 모여 이어져 왔던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에 부는 바람이 상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제주 섬에는 삼성혈 신화에서부터 탐라국시대를 거치며 온갖 문물이 모두 바람에 실려 왔다. 협죽도, 칸나, 선인장, 문주란, 황근, 해녀콩 등 해안 자생식물과 황새, 팔색조, 노랑부리저어새 등도 바람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때로 육지를 향해 가던 제주인들은 바람을 잘못 만나 필리핀, 오키나와, 대만, 심지어 베트남까지 표류하기도 했으며, 반면 외국 선박들도 수없이 섬으로 표류해왔다. 하멜의 표류는 하대한 일상의 두드러진 사건의 하나이며, 서북 동정도 한 예다.⁸¹⁾

제주 사람들은 바람을 막되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바람이 흩어져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다. 초가지붕을 둥글게 하거나 바람벽을 만들었다. 밭담과 방풍림을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극대화할 방식을 터득했으며, 구황작물을 재배하였다. 바람의 미학을 이해하는 것이 제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람을 주제로 하여 서귀포 원도심에 지역문화자원인 불로초로 영생을 바람한 ‘서북전설’과 서북전시관⁸²⁾, 폭풍의 화가 ‘변시지’와 그의 작품에 담긴 바람의 미학을 파악하고 교육 자료로서 가치를 살펴보겠다.

80) 김동주(2012), 「제주도 바람의 사회적 변형과 그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6(1), p.164.

81) 주장현(2011), 앞의 책, p.13.

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위치한다.

2) 불로초로 영생을 꿈꾼 서복의 바람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 서복(徐福, 기원전 255~?)은 제(齊)나라에서 태어났다. 서복의 고향은 진나라 당시 제군(齊郡) 황현(黃縣) 서향(徐嚮)으로 오늘날로 치자면 산둥성 용구시(龍口市)이다. 제나라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연·제나라의 신선사상 영향을 받은 서복은 방사(方士)⁸³⁾가 되었다. 진시황의 명을 받고 서복은 불로장생을 위한 약을 찾아서 대선단 3,000여 명을 거느리고 동도(東渡)하였으나, 평탄한 들녘을 얻어 나라를 세우고 돌아가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서복 일행의 최종 정착지로 알려진 일본에서 농·어업 및 의약·주거문화·토기 등 야요이문화의 기반을 세워 일본 경제 사회의 발전에 공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한국·중국·일본에서는 매년 서복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서복은 선진 문명을 전파한 ‘문화의 사자(使者)’라고 평가받고 있다.⁸⁴⁾ 서귀포와 관련된 서복 일행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209년 최후의 동도를 할 때이다. 당시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영주산(한라산)으로 불로초를 캐러 갔다가 불로초는 찾지 못하고 아고산 지역에서 자라던 시로미 열매를 채취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때 서복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물이 직접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폭포 바위벽에 ‘서불과지(徐市過之)’라는 네 글자를 남겼다고 한다.⁸⁵⁾

서귀포시는 서복스토리를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여 2002년 1월부터 정방폭포의 북쪽 지역 부근에서 ‘서불과지유적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2003년에 서복전시관 건물을 완공하였다. 서복전시관은 정방폭포로 가는 입구 쪽에 지어져 있다. 전시관 외부는 불로초 공원을 만들고, 서복의 스토리를 돌로 각인하여 벽화로 작업해서 서복 10경을 제작했다. <사진IV-7>은 현재 서복전시관 외부 공원에 벽화로 조성된 서복 10경중에서 1경인 서불과지(徐市過之)와 2경인 서귀기원(西歸起源)의 모습이다.

83) 천문·의학·신선술·점복·상술 등을 연구하는 사람을 방사라 한다.

84) 서복전시관, <https://culture.seogwipo.go.kr/seobok/index.htm>, 검색일: 2021.04.05.

85) 이종화(2005), 「서귀포 서복문화의 관광상품화 방안-장수 소재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7, pp.298-299.

<사진Ⅳ-7> 서북 10경 중 서불과지(徐市過之)와 서귀기원(西歸起源)



* 출처: 연구자 촬영(2021.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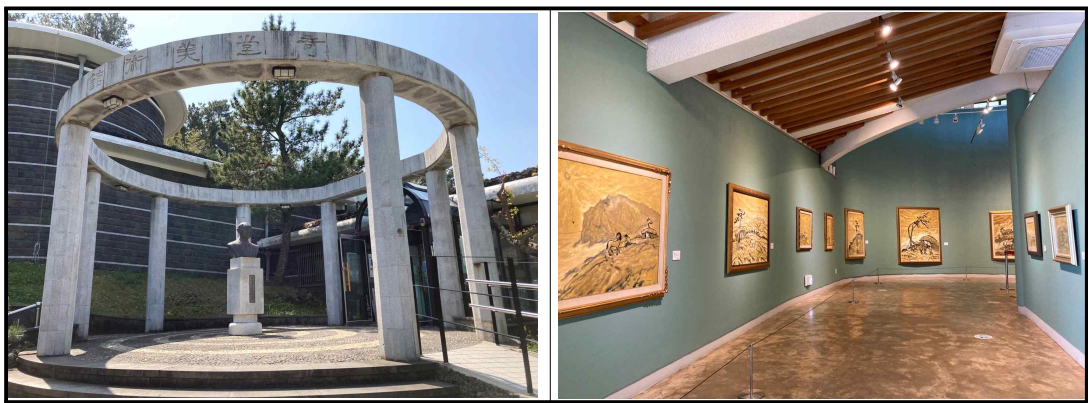
오늘날 서북전설은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생을 바라는 진시황에게 불로초를 바치려던 서북의 바람은 끝내 지켜지지 못한 까닭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을 마무리하였다고 전해지지만 결핍과 역경을 극복하고자 했던 문화의 사자라는 측면을 부각하여 서북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 또한 서북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한라산을 올랐다는 전설은 웰빙과 장수를 키워드로 ‘불로장생(不老長壽)의 도시 서귀포시’로 관광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문화 관광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서북의 스토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한·중·일 3국이 학제간 연구 및 학술 교류행사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 폭풍의 화가 변시지와 작품

서귀포에 위치한 기당미술관에 가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인 변시지(邊時志, 1926~2013) 화백이다. 1926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난 변시지는 오사카 미술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뒤 도쿄로 상경했다. 1948년 제34회 광풍회전에서 최연소로 최고상인 ‘광풍상’을 수상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귀국 이후 1975년부터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재직하면서 고향인 제주도에 정착했다.⁸⁶⁾ 변시지는 일본과 서울생활을 거쳐 제주로 귀향한 후 섬이라는 고립

된 공간과 그 속에 살아가는 제주인을 통해 인간본성을 통찰하며 ‘제주화’ 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완성해냈다.⁸⁷⁾ 황토색 배경 안에 외롭게 있는 사람, 동물, 자연 등 소재를 먹색 필선으로 표현하여 제주 특유의 거친 풍토와 정서를 담은 작품을 제작했다. 화가의 그림 속에 바닷새, 돌담, 까마귀, 초가, 소나무, 떠가는 배, 바위, 바다를 들여다보면 섬의 상징과도 같은 광풍의 바람이 함께 불고 있다.

<사진 IV-8> 기당미술관 전경과 상설전시실



※ 출처: 연구자 촬영(2021.04.08.)

<사진 IV-8>과 같이 기당미술관 상설전시관에서 본 화폭에 그려진 바람의 표현은 애향의 마음을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다. 기당미술관은 1997년 변시지가 명예관장을 역임하면서 기당미술관의 건립과 발전에 역할을 한 인연으로 작품 전시와 소장품을 활용한 작가의 방을 재현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제주지역 작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작가들의 회화, 조각, 공예, 판화, 서예 등 전 부문에 걸쳐 660여점이 소장되어 있다.⁸⁸⁾ 변시지와 그의 작품을 비롯하여 제주를 주목하고 모여드는 신진 작가들과 작품, 문화예술계의 바람을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관람을 통해서 생생한 미술관 투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8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04.10.

87) 기당미술관, <https://culture.seogwipo.go.kr/gidang/index.htm>, 검색일: 2021.04.10.

88) 위의 자료, 검색일: 2021.03.28.

5) 길⁸⁹⁾의 의미

길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생성·발전해 온 문화원형 요소이다. 길은 연결 공간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고, 걷고 타고 다니는 노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역사적 전개과정을 뜻하기도 하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인생의 방향, 목적이나 수단을 지칭하기도 한다. 길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니 헤쳐나아가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보통 길은 ‘road’의 의미로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나있는 연결통로를 의미하며, 도로라는 말로 쓴다. 동양사상에서 길은 ‘way’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도(道)로서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심성이나 행위 혹은 도덕적인 길을 뜻하기도 한다. 길에 대한 다각적인 의미를 토대로 노지문화를 살펴보고 서귀포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과 연결해서 지역문화 교육의 소재로서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노지로 이어진 ‘길’

지역의 특정 거리는 사람들에게 도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길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공공영역으로서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문화관광거리는 역사적인 사건 혹은 역사적 인물의 생가가 있던 곳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또는 저명인의 생가나 집필지 등으로 관광명소화가 된 곳,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지역, 연극이나 공연의 배경이 되는 지역, 아니면 특정 계통의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 등지에 선정된다.⁹⁰⁾ 서귀포 원도심의 노지로 이어진 길을 주제로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중정로’⁹¹⁾와 ‘이중섭거리’⁹²⁾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89) 사람이나 동물,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너비의 공간/ 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걸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 방법이나 수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전개되는 과정/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 물건에 손질을 잘하여 생기는 윤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2021.04.04.

90) 이진희(2011), 「이중섭 문화거리에 대한 방문객의 이미지 유형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39, pp.265-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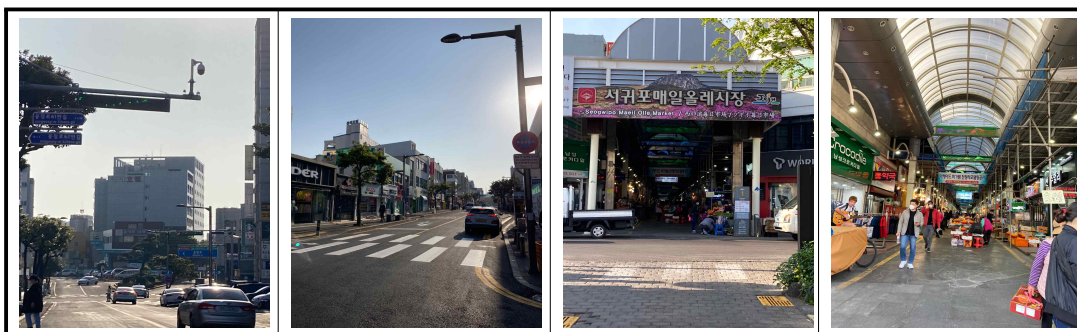
91) 중정로는 서귀포시 서귀동 317에서 서귀동 251-1로 약 1.3km에 이르는 길이다.

92) 이중섭로는 서귀포시 서귀동 406-9에서 서귀동 478-5로 약 0.4km에 이르는 길이다.

(2) 삶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중정로

중정로 인근은 태평로의 시작과 끝 양쪽에서 만나는 서귀포시 상권의 중심가에 속한다. 특히 중정로 북쪽에 있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은 도심권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1960년부터 5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4~5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전통시장처럼 어려움을 겪었으나 상인들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제주 전통 떡인 오메기떡을 전략 상품으로 홍보하면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⁹³⁾ 이렇게 차별화를 시도하며 시장 살리기를 한 결과,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 되었다. 중정로 일대는 <사진Ⅳ-9>와 같이 주요 상업시설이 집적된 곳으로 구도심의 중심지로서 서귀포의 중심지라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사진Ⅳ-9> 중정로 일대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 출처: 연구자 촬영(2021.04.08.)

중정로는 인근 이중섭거리와도 인접해 있으며 서귀포 시민과 시장 상인들의 삶의 역사와 시장 체험형 관광과 문화예술적인 요소까지 포함된 관광명소형의 거리 성격을 띤다. 시장과 거리를 중심으로 서귀포시 원도심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며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교육과 탐방이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 상인들은 물론 거리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머물고 싶은 원도심의 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올레 6코스가 지나

93)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2014), 『곱들락한 제주길 이야기: 제주문화로 만나는 도로명이야기』, 생각심포: 휴먼컬처아리랑, p.258.

면서 올레꾼들이 자주 찾고 있으며 방문객 주에 관광객이 70%에 이를 정도이기 때문에 야시장을 조성해서 야간 관광지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축제와 이벤트 등을 여는 노력 끝에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향토자원을 소개하고, 먹거리를 소개하는 탐방과 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길과 시장에 모여든 사람과 상인의 삶과 역사, 그리고 노지 시장의 문화를 접목하여 인문학 강의의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산책 중 이중섭에 빠지다

서귀포시 원도심의 중심에는 화가 이중섭(李仲燮, 1916~1956)의 이름을 건 거리가 있다. 이중섭로는 우리나라의 근대 화가 중 대표적인 인물인 이중섭을 기리며 이중섭미술관과 연결되는 길이다.⁹⁴⁾ 이중섭이 제주도 서귀포에 거처를 얻어 머물렀던 기간은 한국전쟁이 있던 1951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 정도였다. 피난 시절 그는 당시 한 평 남짓한 방을 세내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대표작 <황소(1953)>를 비롯해서 <두 어린이와 복숭아(1953)>, <서귀포의 환상(1951)>, <실심이 보이는 풍경(1951)> 등 제주의 바다와 가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남겼다.⁹⁵⁾ 그가 서귀포에 머무는 동안 비록 많은 작품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서귀포는 그의 작품세계를 파악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장소로 평가받는다.⁹⁶⁾ 예술적으로 승화가 되었으나 실제 이중섭의 피난살이는 처절할 정도로 궁핍했다. 이중섭 생가를 방문하면 네 가족이 서로의 살을 포개면서 잠들었을 한 평 남짓한 작은 크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살림살이는 가난했지만 당시 그림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바다, 물고기, 게, 아이들과 같이 제주도의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 표출했다.⁹⁷⁾ 그 중 서귀포에서 그린 황소는 이중섭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소의 말>이라는 시비가 <사진Ⅳ-10>과 같이 이중섭미술관 마당에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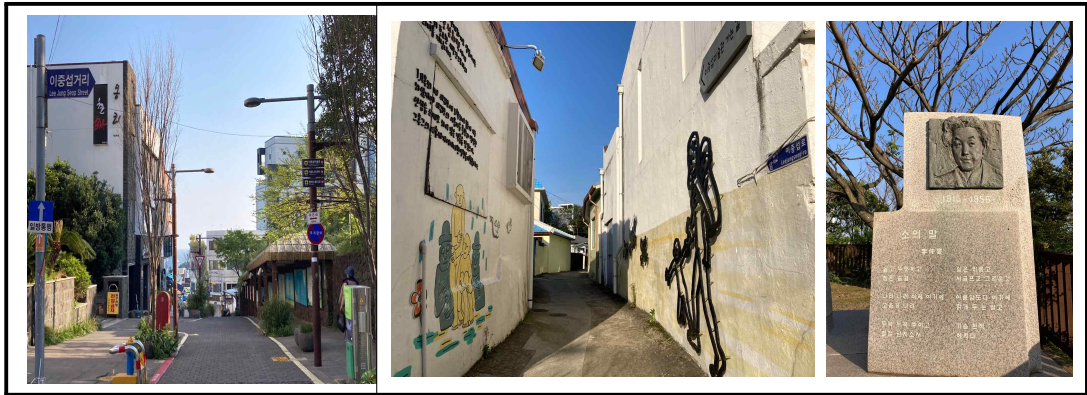
94) 위의 책, p.257.

95) 조진행(2000), 「이중섭의 생애와 작품세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12.

96) 이세경(2011), 「이중섭의 회화 공간과 김춘수의 시 공간 비교 - 서귀포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8, p.207.

97) 심영욱(2020), 「이중섭 작품의 유희적 표현과 바다 미학-제주, 부산, 통영 시절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49, p.58.

<사진Ⅳ-10> 이중섭거리와 이중섭미술관 전경



※ 출처: 연구자 촬영(2021.04.08.)

이중섭과 서귀포의 인연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귀포시 서귀동에 이중섭 미술관과 이중섭 문화거리까지 형성되게 할 정도로 깊다. 거리는 그가 피난생활을 하며, 작품 활동을 하던 곳 주변으로 조성하였다. 전형적인 관광명소형의 문화거리라 할 수 있다. 문화거리 내에는 옛 삼일극장 일대를 중심으로 초가집을 복원한 이중섭 생가, 이중섭 미술관, 이중섭 공원 등의 문화자원이 분포한다.⁹⁸⁾

이중섭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이 불꽃같은 예술혼을 일으킨 대표적인 ‘길’ 문화자원으로 역사·인물·예술·문학 등 다방면의 스토리를 품고 있다. 이중섭이 오갔을 그 노지의 길을 따라 그의 작품과 생애, 가족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예술 및 관광과 융합된다면 교육 자원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6) 사람⁹⁹⁾의 의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한다. 현재 생존하는 인류를 가리키는 학명은 ‘슬기롭고 슬기로운 사람(Homo sapiens sapiens)’으로 약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

98) 이진희(2011), 앞의 논문, p.271.

99)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 인격에서 드러나는 됴됨이나 성질/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엄연한 인격체로서 가리키는 말/ 친근한 상대방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사용하는 말/ 뛰어난 인재나 인물/ 어떤 일을 시키거나 심부를 할 일꾼이나 인원/ ‘사람’을 세는 단위/ 주로 고유어 수와 함께 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인격자,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을 포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2021.04.03.

고 한다. 분류학적으로 살펴보면 사람과(hominidae)에 속하는 고릴라속·침팬지속·사람속으로 분류된다. 의학적으로 고도의 지능을 소유한 존재,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로 분류된다. 흔히 문화를 인간 삶의 총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이 곧 문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화원형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동물’, ‘도구를 쓰는 존재’, 혹은 ‘사유하는 존재’, ‘언어를 가진 존재’, ‘노동하는 존재’라는 등 수없이 정의되어 왔다. 사람에 대한 의미를 토대로 노지문화를 살펴보고 서귀포 원도심의 노지문화자원과 연결해서 지역문화 교육의 소재로서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노지로 모여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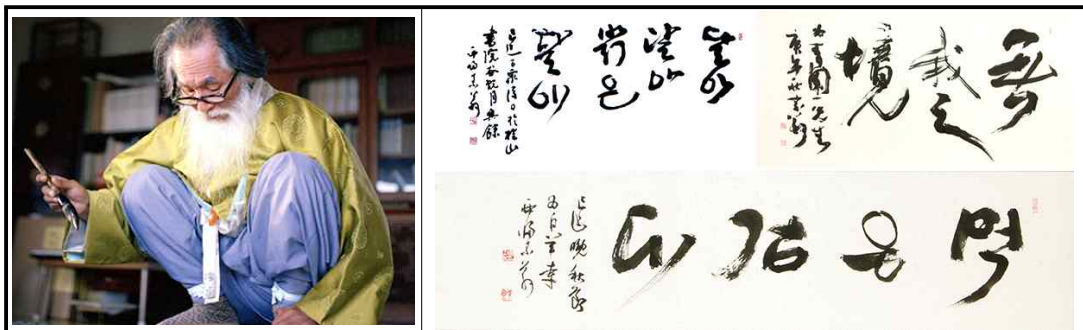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집단으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반면에 사람은 개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며, 슬기로운 정신과 육체적 활동을 하는 존재다. 사람은 스스로 성찰하고, 존재론적 물음을 던지며 끊임없이 철학적인 사고를 던지면서 내면 이해와 수행을 하기도 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특성은 동물과는 달리 사회화를 하는 것, 자기 절제와 반성을 할 줄 아는 것, 생각을 문자 혹은 ‘예술’로서 표현하는 것, 자기 연민이나 측은지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에 모여든 사람 중에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성격이 무뚝뚝한 사람이 있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 돌담을 잘 쌓는 사람이 있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주장만을 펴는 사람이 있다. 또한 섬사람이 있고, 육지사람이 있다. 이는 제주도의 문화에서 섬과 육지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은 흔한 이분법이다. 역사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육지 사람은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고, 유배인과 표류인의 역사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고립된 도서지역이라는 환경 속에서 문화의 교류는 외부인의 이주에 의해서 혹은 육지로 나갔다가 되돌아온 주민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특히 서귀포시의 원도심 지역은 관광도시의 특성상 정착주민, 이주민, 내·외국인 관광객, 문화예술인이 다양하게 모여드는 점점 지역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유입으로 문화는 서로 포용되거나 충돌하면서 다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파생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왔다. 여기서는 노지에 모여든 사람을 주제로 서귀포시 원도심을 대표하는 인물자원으로서 ‘현중화와 소암기념관’¹⁰⁰⁾, ‘서귀포 칠십리축제’¹⁰¹⁾를 통해 지역의 사람과 삶의 문화를 살펴보겠다.

(2) 춤추는 필묵의 대가 서귀소옹

소암기념관은 20세기 한국 서예의 거장, 소암 현중화(玄中和, 1907~1997)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기 위해 2008년 10월 4일에 개관하였다. 이 기념관은 상설전시실 I, II 및 기획전시실, 조범산방(소암일대기실·창작산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암의 글씨는 생활·고전·자연의 결정(結晶)이라고 평가 받는다. 소암은 일생을 서예 고전의 재해석에 몰두하였고 자신의 예술혼을 현실공간인 제주바다와 산, 하늘을 소재로 필묵으로 표현해 냈다.¹⁰²⁾

<사진Ⅳ-11> 소암 현중화와 서예작품



※ 출처: 소암기념관 홈페이지 자료 연구자 재구성

소암기념관은 <사진Ⅳ-11>과 같이 서귀포 출신의 대표작가 현중화와 그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서예가 예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현중화에 대한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서귀포 미술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획의 대가로 추앙받으며 서귀소옹¹⁰³⁾으로 불렸다. 의미를 되새기며 서귀포지역

1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15에 위치한다.

101) 서귀포시 서흥동 689에 위치한 칠십리아외공연장(천지연광장)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102) 소암기념관, <https://culture.seogwipo.go.kr>, 검색일: 2021.03.28.

103) 소암의 아호 중 하나로 서귀소옹(西歸素翁)은 서방정토로 돌아가는 늙은이라는 의미이다.

문화예술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자원으로서 삶을 조명하고 작품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교육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소암기념관을 방문한 학습자에게 서예나 탁본 등을 통해서 소암의 글씨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현장 참여형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3) 이상향을 향해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칠십리축제

서귀포칠십리(西歸浦七十里)의 어원을 살펴보겠다. 1416년(태종16년) 안무사 오식(吳湜)에 의해 제주도 행정구역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나뉘게 되었다. 1423년(세종 5년) 안무사 정간(鄭幹)에 의해 정의현청(고성)이 현재의 표선면 성읍마을로 옮겨지면서 70리라는 거리 개념이 짝트게 되었다. 1653년 제주목사 이원진에 의해 발간된 『탐라지』에 의하면, 서귀포는 정의현청에서부터 서쪽 70리에 있으며, 원나라에 조공할 때 순풍을 기다리던 후풍처(候風處)였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서귀포칠십리가 정의현청이 있었던 현재 성읍마을에서 서귀포구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개념으로 쓰였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이 말은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니라 제주인의 마음속에 안식과 위로,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이어도’처럼 서귀포시민의 마음속에 이상향의 의미가 포함된 말이다. 아름다운 서귀포의 신비경을 대변하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칠십리축제는 1995년에 시작된 축제로서 올해 27회째를 맞이한다. 서귀포칠십리축제 조직위원회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가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축제는 이상향의 도시 서귀포 지역의 번영을 위한 지역의 상징성을 지닌 축제인 만큼 서귀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¹⁰⁴⁾ 칠십리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노지에서 일어나는 축제는 지역만의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 관광객 모두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축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상향을 향해 모인 사람들이 축제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 교류가 일어난다면 살아있는 노지문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4) 서귀포칠십리축제, <http://www.seogwipo.go.kr/festivals/70ni.htm>, 검색일: 2021.04.05.

4. 프로그램 적용 및 활용 방안

1) 프로그램 적용 방안

(1) 프로그램 개요

본고에서는 서귀포시 원도심 일대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의 노지문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Ⅳ-4>와 같다.

<표Ⅳ-4> ‘노지로(路) 연대학’ 프로그램 개요

분류	내용
명칭	노지로(路) 연대학 (열린 ○○ 노지문화 학교)
장소	서귀포시 원도심 노지 일대 -야외 공연장 및 공원, 역사문화 공간, 실외 문화거점, 거리 등
운영	봄(3~6월) 혹은 가을(9~11월) 학기에 유동적 운영 (※서귀포 지역별 특성 고려 및 휴한기와 휴서기를 피함)
대상	문화에 관심 있는 서귀포시 원주민, 이주민, 관광객, 문화예술인, 노지로 모여든 시민
특징	① 서귀포시 원도심 노지문화자원 소재로 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 ② 6개의 문화원형을 중심으로 노지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문화 맞춤형 프로그램 ③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교육프로그램 ④ 지역·장르·자원·사람 불문, 경계를 넘어선 융복합 시민문화 교육프로그램

※ 출처: 연구자 구성

프로그램명은 ‘노지로(路) 연대학’이며,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호응 받고 검증을 받았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착안하였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는 서귀포시 원도심의 야외 공연장 및 공원, 역사문화 공간, 실외 문화거점, 거리 등 노지 일대이다.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농사 및 관광 숙박업에 종사 인구 비율이 높은 서귀포시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지에서 열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휴한기와 휴서기를 피해 날씨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봄과 가을 학기 중에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프로그램의 학습 대상은 문화에 관심 있는 서귀포시 원주민, 이주민, 관광객, 문화예술인, 노지로 모여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본 프로그램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서귀포시 원도심 노지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이다. 둘째, 빛·물·돌·바람·길·사람의 여섯 가지 문화원형을 중심으로 노지문화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이다. 셋째, 서귀포시 원도심의 노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교육프로그램이다. 넷째, 장르, 자원, 사람을 불문하고 경계를 넘어서 어떠한 지역이라도 확대·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시민문화 교육프로그램이다.

본고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에서 다양한 장르의 조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한계에 착안하여 인문학 강의를 바탕으로 생태과학과 문화예술 장르를 결합하여 만든 ‘노지로(路) 연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서귀포시의 원도심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고 시사점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탐색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회복’과 ‘환대’, ‘사람’, ‘연대’를 통한 문화적 삶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서귀포문화의 정체성을 담은 ‘노지문화’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즉,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노지문화자원을 사람과 예술, 그리고 생태과학과 융합하여 개발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노지로(路) 연대학’이다.

여기서 노지는 개방된 장(場)을 의미하며, 자연친화적인 지역 공동체의 삶의 현장이자 문화적 연희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개방된 지역이 무대가 된다. ‘로(路)’는 한자 그대로 ‘길’로 도로와 방법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노지의 길을 뜻한다. ‘연대(連帶)’라는 의미에는 먼저 ‘개(開)’의 의미인 ‘열다, 열리다, 열려있다, 통하다, 통달하다, 꽃이 피다, 개간하다’의 의미가 있다. 이로써 열린 학교, 열린 교육, 열린 강의 등 개방된 노지에서 연 교육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연대는 특정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행동을 같이 하거나 뜻을 함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특정 공동체나 세대 가치관, 지역성을 뛰어넘어 동행이 되고 모이고 이어진다는 의미로 사회적 단결과 문화공동체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Ⅳ-12>와 같이 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 선주민, 관광객, 문화예술인 모두 노지문화 연대의 공동체가 되어 원도심 지역에서 열린 교육에 참여하고 어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IV-12> 노지로(路) 연대학 프로그램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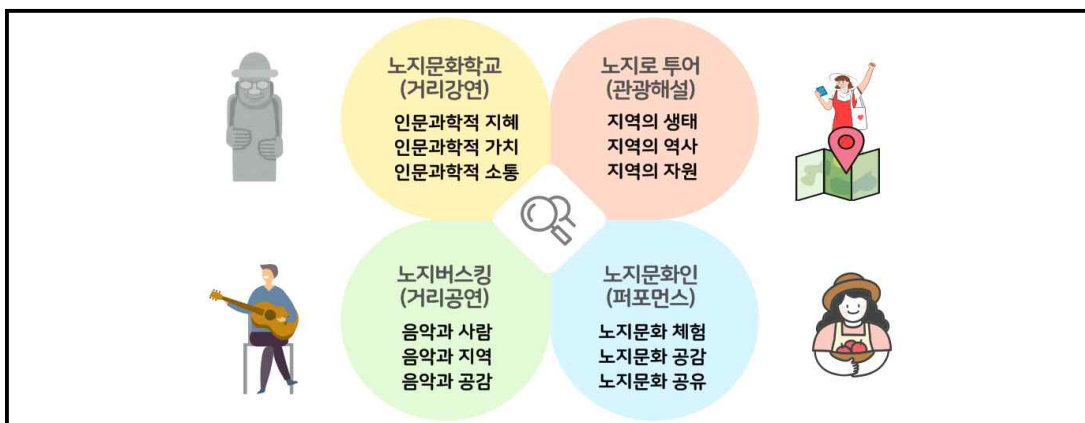
※ 출처: 연구자 구성

이 프로그램의 세계관 속에서는 서귀포라는 이상향을 향해 모인 시민이 함께 연결되어 문화공동체로 뻗어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람, 환대, 연대와 문화의 힘이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문화가 일상에서 멀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일상과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관점, 모두와 소통하고자 하는 관점, 가치를 연결하고 확장시키려는 관점, 다양함의 공존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2) 프로그램 운영 방법

‘노지로(路) 연대학’은 <그림 IV-13>과 같이 인문과학 강연, 생태관광 해설, 퍼포먼스 체험, 버스킹 공연이라는 다양한 장르가 융복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그림 IV-13> ‘노지로(路) 연대학’ 프로그램 운영



※ 출처: 연구자 구성

첫째, 거리 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 강의 형식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쉽고 친근한 스탠딩 토크쇼 강연에 가깝다. 즉, 강연자는 주제에 따라 인문학적 지식을 토대로 노지문화에 접목하여 스토리텔링을 하여 강연한다. 강의자는 학습자의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이때 노지문화 학교에서 강연은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열려있는 지혜 공유의 장을 의미하므로, 누구나 강의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태관광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형태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관광과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같이’의 형태가 되어 해설이 있는 노지 생태관광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다. 이는 일종의 짧은 문화기행으로 노지문화를 체득한 지역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지역의 삶에 대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지역의 환경을 소중히 느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해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소규모 단위로 문화관광 전문해설사가 동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는 전시관을 관람하듯 매체를 활용하여 지도와 안내판을 보면서 자기안내해설을 따라 학습자들의 소규모 투어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지문화인 퍼포먼스는 지역 내 숨어있는 노지문화의 장인, ‘꾼’¹⁰⁵⁾을 찾아서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퍼포먼스’란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예술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문화교육의 추세는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거나 향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로 하여금 참여와 체험을 통해 문화적 경험과 사고의 확장을 끌어냄으로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인의 경지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데 교육의 목표가 있다. 따라서 노지 생활의 장인인 치성꾼, 나무꾼, 물질꾼, 낚시꾼, 건축꾼, 돌담꾼, 수다꾼, 농사꾼, 난전꾼, 살림꾼, 놀이꾼, 솜씨꾼을 찾아 노지에서의 삶을 듣고 전수받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학습자는 예술적 경지나 미학적 표현 역량은 아니더라도 문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지문화인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은 퍼포먼스를 통해 노지에서 자신의 재주를 재현함으로써 기록하고 전승되고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105) ‘꾼’이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이다.

교육자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살아온 삶이 곧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노지문화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뜻의 ‘busk’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거리공연 하는 것을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 하는 사람을 버스커(busker)라고 한다. 노지의 버스킹은 시민의 참여와 연주 형태에 기반 한다. 주제에 따라서 지역의 특색을 담고, 연주자에 따라서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¹⁰⁶⁾ 이때 버스커는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연주와 노래가 가능한 서귀포 지역의 시민이 원도심 지역의 공연이 가능한 거리, 골목, 야외공연장 등에서 약속된 시간에 자유롭게 거리공연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사전에 참가신청을 통해서 신청하고, 시민은 공연자와 관객이 되어 음악공연의 향유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역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때와 장소에 맞춰 지역의 노지문화의 특성을 담은 주제를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3) 프로그램 적용 방안

노지로 연대학 프로그램의 적용 방안은 <표IV-5>와 같다. 본 프로그램은 6가지 주제별로 지역의 노지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총 12회기 프로그램이 되도록 예시를 들었다. 주제는 여섯 가지 문화원형 요소인 노지에 내리는 빛, 노지에 스며든 물, 노지에 구르는 돌과 박힌 돌, 노지에 부는 바람, 노지로 이어진 길, 노지로 모여든 사람이다. 그 중 1회기와 2회기를 살펴보면 노지에 내리는 빛을 주제로 노지문화학교에서는 노인성과 감굴에 대한 강연이 이어지고, 노지로 투어에서는 서귀포 야행과 삼매봉 오르기, 감굴박물관과 감굴밭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며, 노지 문화인에는 별빛 사냥꾼과 감굴 나무꾼을 초대하여 퍼포먼스를 보고, 노지 버스킹은 ‘빛’이라는 주제에 맞춰 빛나는 공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계속해서 주제에 따라서 서귀포층과 천지연폭포, 외돌개, 서귀진지, 서북, 기당

106) 조경은(2020), 「문화도시를 위한 시민예술교육의 융복합 프로그램 고찰」, 『유럽문화예술학 논집』, 22, pp.115-116.

미술관과 번시지, 중정로와 이중섭로, 소암 현중화, 칠십리축제까지 노지문화학교와 노지로 투어, 노지문화인 초대, 노지 버스킹이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준별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각 4가지 장르로 나뉜 교육 프로그램은 종과 열로 ‘따로 또 같이’ 운영할 수 있다. 회기별로도 따로 운영하여 시즌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적용 역시 주체에 따라서 융복합적이며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학습 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대를 뛰어넘는 시민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노지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표IV-5> ‘노지로(路) 연대학’ 프로그램 적용(안)

프로그램명		노지로(路) 연대학 (열린 서귀포 노지문화 학교)			
구분	주제 (Theme)	노지문화 학교 (인문과학/거리강연)	노지로 투어 (생태관광/해설)	노지 문화인 (퍼포먼스/체험)	노지 버스킹 (음악/거리공연)
1회기	노지에 내리는 ‘빛’	무병장수의 상징 노인성	서귀포 야행, 삼매봉 오르기	사냥꾼	빛나는 공연
2회기		황금빛 꿈의 열매 감귤	감귤박물관 감귤밭투어	나무꾼	
3회기	노지에 스며든 ‘물’	화산섬의 시작 서귀포층	서귀포층 방문, 잠수함투어(선택)	물질꾼	물세는 공연
4회기		호연지기를 채우는 천지연폭포	천지연폭포 투어	낚시꾼	
5회기	노지에 구르는 ‘돌’	바다 위 외로이 솟은 외돌개	외돌개에서 올레7코스	건축꾼	모난돌 공연
6회기	노지에 박힌 ‘돌’	서귀포 시민의 수문장 서귀진지	서귀진지에서 본향당까지	돌담꾼	
7회기	노지에 부는 ‘바람’	불로초로 영생을 꿈꾼 서북의 바람	정방폭포에서 서북전시관 투어	수다꾼	바람난 공연
8회기		기당미술관에서 받은 폭풍고백	기당미술관 전시 투어	소리꾼	
9회기	노지로 이어진 ‘길’	삶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중정로	동문R에서 매일올레시장 걷기	난전꾼	골목길 공연
10회기		산책 중 이중섭에 빠지다	미술관과 작가의 산책길 투어	살림꾼	
11회기	노지로 모여든 ‘사람’	춤추는 필묵의 대가 서귀소용	소암기념관 투어	숨씨꾼	살맛나는 공연
12회기		이상향을 향해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칠십리축제	칠십리축제 참여하기	놀이꾼	

※ 출처: 연구자 구성

2) 프로그램 활용 방안

(1) 시민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시민문화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동체의 삶과 연계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시민이 마을의 노지자원을 경험하고 사고하며,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실생활과 유연하게 연결하여 가치를 만들고 연대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문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면 행정 차원에서 인문학의 대중화와 노지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노지로(路) 연대학’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의문화캠퍼스 사업 중 시민대상의 노지문화 강좌에서 원도심 중심의 선수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노지문화와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한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접목·활용하여 지역문화의 생존과 유지·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리고 실천하는 시민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노지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따른 보존체계 구축

‘노지로(路) 연대학’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노지문화가 무엇이고 노지문화자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노지문화가 자연과 더불어 공동체 문화를 가꿔왔던 지역의 문화라는 것을 인지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노지문화와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특히 서귀포시의 문화정책과 시민공모를 통해서 노지문화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지원자를 찾고, 교육의 소재로 발굴된 노지문화자원을 콘텐츠 산업으로 연결하면 지역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노지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가치는 더욱 발전하고 공고해질 것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서귀포시의 105개 마을별로 특색 있는 노지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해간다면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로 연계

되어 시민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민 주도의 노지문화 발굴단을 위촉하여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이외에 지정되지 않은 새롭게 발굴된 노지문화자원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보존과 활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의 보존 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노지문화인 양성 및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노지로(路) 연대학’에서 노지문화인의 경우는 노지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서귀포의 문화시민을 초청하여 노지에서 생활의 기술을 배워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노지문화인이라 함은 현재 노지에서 삶을 살고 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노지 생활의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전수가 가능한 지역 주민을 칭한다. 노지 생활의 달인인 치성꾼, 나무꾼, 물질꾼, 낚시꾼, 건축꾼, 돌담꾼, 수다꾼, 농사꾼, 난전꾼, 살림꾼, 놀이꾼, 솜씨꾼을 찾아 기록하고 전승되고 보존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양성된 노지문화인은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문화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고, 명예강사로의 임명이 가능하다.

노지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한데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의 창의문화캠퍼스와 같은 문화도시의 플랫폼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노지 환경을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인재, 지역의 노지문화를 잘 보존하고 역사와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줄 아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환경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전문 노지문화인이 양성된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주민들은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예술가와의 소통 기회 확대, 예술적 창의성 증진, 문화예술 접근성 및 참여 증진, 문화예술 정보 활용, 문화예술학습, 문화커뮤니티 활동 촉진 등을 통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콘텐츠 창작 및 제작과 관련된 기본 과정과 전문 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콘텐츠산업 전문 인력과 지역의 청년들과의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취·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내 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주민 중심의 노지문화인 양성을 통해 콘텐츠 원천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도내 행정과 기업의 지원을 통해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역사·문화 분야와 ICT 기술과 융합해 간다면 특화된 노지문화인 콘텐츠가 다양한 산업분야로 발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소득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노지로 투어 탐방로 개설 및 관광지도 제작

노지로 투어 탐방로는 자연을 감상하고 보호하는 소위 자연을 본위로 진행되는 관광사상인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는 노지문화와 생태관광의 가치를 파악한 후, 지역의 노지문화자원을 선정하고 관광의 효율화를 위한 도보여행이 가능한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다. 바람직한 생태 탐방로를 개설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인간의 관광욕구와 노지자원의 생태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충족할 수 있는 상호간 거리유지에 있다.

또한 탐방로에 관광객을 안내함에 있어서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가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귀포 원도심 지역에는 작가의 산책길, 이중섭 거리, 칠십리음식특화 거리, 솔동산 문화의 거리, 아랑조를 거리, 올레길, 천주교 순례길, 불교 선정의 길 등이 등 다양한 길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노지로 탐방로만의 특색이 필요하다. 탐방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걷고 싶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로 인식되도록 흥미와 의미를 줄 수 있는 노지문화자원을 배치해야 한다.

탐방로의 운영은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적 해설의 경우 전문적인 해설사의 배치가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을 선발하여 전문 교육을 해설사로 양성하고 현장 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해설가의 동행 없이도 관광객 스스로 노지로 탐방을 통해서 노지문화와 자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설표지판, 음성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해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안내를 돕기 위한 어플 서비스나 소책자, 지도를 중심으로 홍보와 해설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도는 노지문화 테마별로 노지의 빛, 물, 돌, 바람, 길, 사람에 따라서 버전을

다르게 하여서 지역의 노지문화자원의 정보를 수록해서 제작해 볼 수 있다. 이때 연령별 노지문화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매품 혹은 매품으로 구분해서 제작한다. 또한 서귀포 원도심의 야간 탐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노인성이나 서귀진지 등 야간에 탐방하는 노지 스토리 북 형태로 소책자나 워크북을 발간해 볼 수 있다.

노지 스토리 북은 계층별, 취향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간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상품화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근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등과 상생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원도심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위원회나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객의 욕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관광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업이나 전문가 집단과 결합하여 생태·관광·교육이 결합된 노지로 투어 상품의 마을별 런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지역과 지역주민의 문화를 통해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탐구해 보았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각 나라별 문화적 특색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중에서도 지역발전과 지역문화가 강조되기도 한다.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한 만큼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에서도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시행하며 지역화의 가속화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주력하였다.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주제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삼는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 자치적인 문화발전과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람이 행복해질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삶과 행복한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는가는 지역문화 교육의 과제가 되었고, 이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해졌다.

본고에서는 지역문화 발전과 저변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노지문화를 개발하고 전파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지역문화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노지문화’에 대한 정의를 위해 ‘노지’와 ‘문화’의 개념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지역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라는 체계 안에는 지역별 특성을 가진 지역문화가 존재하고, 노지문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지문화와 지역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화적인 토대를 쌓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지문화의 구성 요소로는 빛·물·돌·바람·길·사람과 같은 문화원형들이 본연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노지문화자원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꾸는 주민 주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노지문화에 대한 이해 및 문화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지역문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타 지역의 문화교육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노지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의 노지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었다. 구상을 통해 개방된 노지의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노지로(路) 연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노지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활용을 통해 서귀포시가 노지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한층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결론에 더하여 노지문화 연구 및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에서 노지와 노지문화의 개념과 가치를 살펴보았으나 노지문화가 최근 새롭게 발표된 개념이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대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조화롭게 살아가는 노지와 노지인의 삶의 문화를 고찰하여 지켜나가고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노지문화와 관련된 지역문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노지문화 혹은 노지문화자원은 문화적으로 보존될 가치가 있고 교육을 통해서 널리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매일 보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 리 없는 지역주민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노지문화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 노지문화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숨은 노지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역문화가 외면되거나 평가 절하되지 않고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귀포 105개 마을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 또한 필요하다.

셋째, 노지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교육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지문화 전문 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지역을 하나의 박물관으로 조성하여 건립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서귀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노지를 연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여 전문적인 노지학 분야가 학문적으로 정착된다면 연구

자료와 자원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노지문화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로서,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문화로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지문화는 공동체의 생활과 정신이 담긴 문화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곧 문화 체험과 전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생태계와의 토착적인 삶에 주목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써 앞으로 공동체의 삶에 대한 사유는 인간끼리의 삶이 아니라 생태계 모두와 관계 맺고 공생하는 삶으로 바뀌보기 위해서라도 노지문화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즉, 지역주민 스스로 노지의 삶 속에 담겨진 자연과 인간의 지혜로운 공존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노지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 노지문화에 관심 있는 타 지역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지 생활 안내 및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주민의 양성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는 시민의 일상 곁으로 다가왔고, 지역문화 정책에서도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노지문화는 지역문화 자치정책의 일환에서 나온 것이니 주제나 시대에 맞게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발족되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노지문화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 유희공간의 문화거점화 사업을 진행하여 문화 플랫폼 구조에서 예술가, 지역주민, 문화 매개자 등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지문화와 관련한 지역문화 정책 역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문화 생태계의 디지털 시스템 기반을 다져갈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소규모 문화 거점화를 통해 인터넷 연결망과 같은 리즘형 문화 연결¹⁰⁷⁾ 거점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다. 리즘형 디지털 문화 플랫폼은 예술가와 시민을 연결하고, 예술가와 지역사회, 시민과 시민의 연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형식의 창작, 고객개발, 예술마케팅, 시민문화서비스, 문화예술 플랫폼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

107) 리즘형 문화 연결은 구조가 만들어내는 유동성, 비결정적 사회 망은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지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을 대변한다. 이원재·안병학(2017), 「리즘의 6원리를 통해 본 가변적 아이덴티티 디자인」, 『디자인융복합연구』, 16(1), p.45.

디지털 격차, 알고리즘 편향성, 디지털 소비문화, 실감 예술체험 등 다양한 층위에서 문화와 기술의 초연결화(connectivity)와 융합의 이슈가 제기될 것이다.¹⁰⁸⁾

사람은 지역문화를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문화의 향유자가 되기도 하고, 행위자도 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꾼다. 지역문화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지역의 정체성을 포함하며, 지역자원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담론에서 노지문화는 지역문화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문화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지역민들에게 끈은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108) 임학순(2020), 「코로나19 위기, 지역문화정책의 성찰과 변화」,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79, pp.28-29.

참고문헌(參考文獻)

1. 단행본

- 김창수 외, 『지역축제』, 경기: 대왕사, 2013.
- 비판사회학회,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광주: 한울아카데미, 2012.
- 유현준, 『어디서 살 것인가』, 서울: 을유문화사, 2018.
- 임기중, 『조선종교문학집성(불교편)』, 「불교가사연구」, 누리미디어, 2004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곱들락한 제주길 이야기: 제주문화로 만나는 도로명이야기』, 서울: 생각심포: 휴먼컬처아리랑, 2014.
- 주강현, 『제주 기행: 어느 인문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올레, 돌쟁이, 바람의 풍경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1.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상·하』, 서울: 국학자료원, 2006.
- 현길언, 『제주문화론』, 제주: 탐라목석원, 2001.
- 현혜경·김석윤,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제주: 제주연구원, 2020.

2. 논문류

- 권정우, 「건축과 장소, 그리고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들」, 『삶과 문화』, 제주 문화예술재단, 76, 2020.
- 김동주, 「제주도 바람의 사회적 변형과 그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6(1), 2012.
- 김명석, 「지역 연계 인문학아카데미 개발 사례 연구-서울 종로, 성북, 도봉 지역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6(2), 2014.
- 김상욱, 「빛의 희노애락」, 『지식의 지평』, 19, 2015.
- 김설미, 「<겨울왕국2>에 나타난 ‘물(水)’의 이미지를 활용 한 서사 진행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59, 2020.

- 김용진,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정책-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 문화-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형국, 「도시와 문화를 생각한다」, 『국토』, 2001.
- 서순복,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007.
- 심영옥, 「이중섭 작품의 유희적 표현과 바다 미학-제주, 부산, 통영시절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49, 2020.
- 원다솔, 「동네 기록 기반의 지역문화콘텐츠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이나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광주광역시 동구문화원 사례를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이세경, 「이중섭의 회화 공간과 김춘수의 시 공간 비교-서귀포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8, 2011.
- 이원재·안병학, 「리즘의 6원리를 통해 본 가변적 아이덴티티 디자인」, 『디자인융복합연구』, 16(1), 2017.
- 이용남·이항재·황재하, 「제주도 서귀포층에서 산출된 백상아리 이빨」, 『지질학회지』, 50(5), 2014.
- 이중화, 「서귀포 서북문화의 관광상품화 방안-장수 소재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7, 2005.
- 이진희, 「이중섭 문화거리에 대한 방문객의 이미지유형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39, 2011.
- 이현정, 「사대부의 제주 체험에 따른 노인성(老人星) 인식의 변화 양상 - 조선조 16~19세기 체류 기록과 한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5, 2020.
- 이효나, 「지역기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례분석 연구 -경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희복, 「도서관 공모사업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임학순, 「코로나19 위기, 지역문화정책의 성찰과 변화」,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79, 2020.
- 정지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연구 - 부산지역 음악프로그램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조정은, 「문화도시를 위한 시민예술교육의 융복합 프로그램 고찰」, 『유럽문화예술학논집』, 22, 2020.
- 조진행, 「이중섭의 생애와 작품세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최미영·이소민, 「후시안(不審庵)의 노지(露地)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 6(2), 2020.
- 최소희·유영만·강수민·임애련, 「들뢰즈 리즘 개념에 비추어 본 독서교육의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2020.
- 한슬기, 「지역특성기반 학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태안지역 농산어촌 중학교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 신문기사

- 김찬우, 『제주의 소리』 (2020.10.07.), “서귀포시, 원도심 잇는 ‘문화광장 조성사업’ 본격 시동”, <http://www.jejusori.net>, 검색일: 2021.01.04.
- 김형훈, 『미디어제주』 (2016.03.06.), “생과도, 껍질도 진상될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아”, <http://www.mediajeju.com>, 검색일: 2021.04.04.
- 문신기, 『한겨레』 (2018.07.13.), “오래된 골목과 예술가들의 흔적 사이로 숨바 천이 흐르고”, <http://www.hani.co.kr>, 검색일: 2021.01.10.
- 박가영, 『뉴스제주』 (2020.06.14.), “법정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도시의 새로운 길을 걷다””, <https://www.newsjeju.net>, 검색일: 2021.02.10.
- 『제주일보』 (2020.03.03.), “왜구로부터 서귀포를 지켜준 요새”, <https://www.jejunews.com>, 검색일: 2021.04.05.
- 최현식, 『제민일보』 (2020.12.16.), “노인성 카노푸스”, <http://www.jemin.com>, 검색일: 2021.04.03.

4. 웹사이트

감귤박물관, <https://culture.seogwipo.go.kr/citrus/index.htm>.
강릉시청, <https://gn.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기당미술관, <https://culture.seogwipo.go.kr/gidang/index.htm>.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
서귀포시청, <http://seogwipo.go.kr>.
서귀포칠십리축제, <http://www.seogwipo.go.kr/festivals/70ni.htm>.
서북전시관, <https://culture.seogwipo.go.kr/seobok/index.htm>.
인천광역시청, <https://www.incheon.go.kr>.
조선종교문학집성(불교편), <https://www.krpia.co.kr>.
국토정책 Brief, <https://www.krihs.re.kr>.
제주지질공원, <https://www.jeju.go.kr/geopark/index.htm>.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s://www.jeju.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5. 기타 자료

서귀포문화도시센터, 『노지문화 시민라운드테이블 결과모음 - 서귀포의 노지문화를 말하다-』, 2020.
서귀포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 서귀포 창의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문화 캠퍼스 교육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 2020.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가이드북』, 2020.
정소양·유재윤·김태영·김용환, 『원도심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 추진방향』, 국토

정책 Brief, 20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특성 및 실태조사 용역 (서귀포시)』,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도시재생 문화에 길을 묻다: 열아홉 이야기로 만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아쉬(ASHH), 2020.

【Abstract】

Study of Local Cultural Education Programs
Based on ‘Noji(Open Ground) Culture’

- Centering on the Original Downtown Area of Seogwipo -

Ja-Yeon Bang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Hee Jang

Local culture is composed of various components, and among them, ‘Noji’ is a concept that has been emerging recently. As it is said that knowledge is learned from books and wisdom is learned from nature, human beings, as a part of local culture, have grown their wisdom in life by cultivating culture in the open ground close to the natural state. In Jeju, the expression ‘Noji’ is used in ‘noji tangerine’ and ‘noji soju’, which the term contains meaning of unprocessed naturalness. Noji is a compound word of ‘dew’ and ‘ground’, and the dictionary definition is ‘ground where dew falls’. It can be interpreted as an open place without a ro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local culture education based on ‘Noji Culture’ and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utilizing the open ground cultural resources of the original downtown of Seogwipo City. In the process, I would like to reveal that the identity of local culture can be formed by rediscovering the value of

noji culture.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selected as the original downtown area of Seogwipo because Seogwipo City was selected as a legal cultural city by the government and presented 'Noji Culture' as a brand representing the region. Also, Noji culture is a cultural policy proposed by the Seogwipo city administration and is also the cultural vision of Seogwipo. The expression was born when the term 'Noji' was found in, noji tangerine and noji soju, products representing Seogwipo City, combined with the term 'culture'.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Noji was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open ground', but also including the spirit and culture of the local community. 'Noji Culture' can be said to be a concept that includes nature-friendly tangible and intangible open ground cultural resources, the spiritual culture of living together, and the culture of the community inherent in people and nature. In other words, the culture that contains the life and spirit of the local community using the open ground is noji culture.

In this paper, we intend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utilizing the noji culture resources emphasizing the locality of Seogwipo City and suggest a plan for its utilization. In the process, we studied the region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downtown area of Seogwipo City, analyzed the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of other areas, and explored the direction to design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be applied to noji areas. The contents of the program provided educational value by using the cultural resources of noji in the original downtown area of Seogwipo as the material, centering on the six cultural archetypes of light, water, stone, wind, road, and people. The goal of this program i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region by discovering the value of various noji culture resources in the original downtown of Seogwipo City. Another goal is to form a cultural community in which local residents can unite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cultural life. Ultimately, the

goal of local cultural education is to strengthen the 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enrich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 the discourse of local culture, the noji culture will become a cornerstone for the changes of local culture, and it will be a guide that suggest a straight direction to local people who are in harmony with nature and pursue a happy life with culture.

Key words: Noji(Open Ground), Noji Culture, local culture, education program, original downtown area of Seogwipo, cultural city, cultural community